

三韓時代 青銅神音具 研究

李 知 恩

LEE Jieun
東亞大學校

I. 머리말

고고학의 궁극적인 목적은 과거 인간의 역사와 문화를 복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연구자들은 물질을 연구대상으로 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인간문화의 물질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측면에도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특히 신고고학 이후에 등장한 후기과정고고학이나 인지주의고고학에서는 과거 전통 고고학에서의 형식분류와 신고고학에서의 기능주의 관점에서 탈피하여 상징을 비롯하여 정신적인 측면까지 다루고자 하였다.¹⁾ 이런 흐름과 맞물려 일본에서는 繩文時代に 보이는 土偶, 彌生時代に 보이는 실용에 부적합한 銅矛, 銅鐸, 鏡, 埋納遺構, 古墳時代の 鏡, 埴輪, 有孔圓板, 祭祀遺蹟, 神社 등과 결부시켜 인간의 정신세계와 당시 관념, 사상을 복원하고자 한 시도가 많이 있어왔다.²⁾ 인간의

-
- 1) Colin Renfrew, 『Archaeology』 (second editon), Thomson and Hudson, 1996.
Colin Renfrew, 「The archaeology of religion」, 『The ancient mind』, Cambridge, 2000
Ian Hodder, 『Reading the past』(second. edit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1.
時津裕子, 『考古學者の認知技術』, 『認知考古學とは何か』, 青木書店, 2003
최몽룡 외, 『인물로 본 고고학사』, 한울아카데미, 1997
추연식, 『고고학이론과 방법론』, 학연문화사, 1997
- 2) 이와 관련한 최근의 연구성과를 간단하게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酒井龍一, 「古代祭祀の諸形態」, 『都市と神殿の誕生』, 新人物往來社, 1998
吉田廣, 「武器形青銅器の祭祀」, 『季刊考古學』 86, 雄山閣, 2004.2
松井一明, 「小銅鐸と銅鐸祭祀」, 『季刊考古學』 86, 2004
大久保 徹也, 「祭祀イデオロギーと埋葬祭祀の肥大化」, 『季刊考古學』 86, 雄山閣, 2004
春成秀一, 「狩獵・採集の祭り」, 『古代史の論点-神と祭り』, 1999.
宮里修, 「青銅器祭祀の源流」, 『季刊考古學』 86, 雄山閣, 2004
寺澤 薫, 『王權誕生』, 講談社, 2000

사고와 관념적 세계관은 인간과 사회를 구성하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로, 본고에서는 이런 관점 하에서 청동음구 가운데, 인간의 정신세계와 관련이 깊은 神과 관련된 桴具를 추출하여, 해석해 보고자 한다.

1. 개념

일반적으로 소리를 내는 도구를 樂器라고 총칭하고 있다. 악기는 음악연주를 위한 목적으로 제작된 도구를 지칭하나³⁾ 광의의 의미로는 發音을 목적으로 제작된 것은 아니지만 부수적으로 소리가 발생하여 음악에 이용하는 도구를 말한다. 그러나 단순히 소리를 증폭시키거나 저장시켜 재현하는 것은 음악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고, 그것을 위한 도구 역시 악기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음악을 연주하기 위한 도구를 악기로 보고, 그 외의 목적으로 음향을 발생시키는 것은 악기보다 큰 범주인 桴具로 하고, 목적별로 神事와 관련하는 것을 神桴具로 명명한다. 神桴具란, 신과 관련한 의례, 즉 神事に 사용되는 桴具로, 보통 신을 부르거나, 신에게 의례 참가자들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는 것을 가리키고자 한다.

神桴具란 神과 桴具라는 한자어를 조합한 것으로, 기존에 사용되지 않은 단어이다. 이미 앞에서 음구에 대해서 언급했으므로, 여기서는 神이라는 단어의 사용 예와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신음구란 용어를 정의하고자 한다. 神은 형용사로 영묘하고, 불가사의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이 명사화되어 정신, 귀신, 신령을 지칭하는데, 제물을 차려놓은 제단의 모양을 본떠서 제물을 신에게 보여준다는 훈을 가진 示部와 桴을 나타내는 申이 합해 이루어진 것으로, 시는 신이나 제사에 관계있음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신이 그 자체로만 사용될 때는 일차적인 의미로 신령, 귀신과 같은 신비스럽고 영묘한 존재를 지칭하여, 그것이 다른 한자어와 결합되어 사용될 때는 신이 뒤에 오는 단어와 관련된 행위의 주체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명사적인 사용에서 의미가 확장되어 신을 위한, 신과 관련된다는 의미로 제사나 의례와 관련되어 해석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신음구는 신을 위해 소리를 내는 도구로, 제사나 의례에 사용하고, 그럼으로써 신을 부르

比田井 克 仁, 『關東における「小銅鐸」祭祀について』, 『考古學雜誌』 86-2, 日本考古學會, 2001.

Mizoguchi Koji, 『Ritual and Social Stratification: the Case of middle and late Yayoi period northern Kyushu, Japan』, 『SEAA2004KOREA』,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2004.

3) 山田光洋, 『樂器の考古學』, 同成社, 2001.

거나, 신을 기쁘게 하거나, 신에게 의례 참가자들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는 토크라고 할 수 있다.⁴⁾

2. 연구사 및 연구방향

신음구라는 용어 자체가 기존에 존재한 것이 아니므로, 이와 관련한 연구사를 찾는다는 것은 무모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신음구는 신과 관련되어 의례적인 용도에서 소리를 내는 도구이므로, 그와 관련된 연구사를 제시해보도록 하겠다.

李健茂는 동경, 동탁, 무기류 등을 제외한 이형유문청동기류를 대상으로 먼저 청동유물을 분류하면서 공반관계를 관찰하여 유물의 조합, 상호형태비교, 제작기법상 특징, 그리고 문양을 중심으로 하여, 용도, 계보와 연대, 그리고 획기 등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통시성을 견지하면서 유물의 성격과 모티브를 여러 민속 예를 이용하여 의미와 사회적 배경에 대해 결론지었다. 이형동기를 儀器로 판단하는 근거로 표면에 새겨진 문양모티브가 샤먼 무구에서 표현되는 태양, 손, 매, 시슴 등과 상통한다는 점, 동령류는 북과 함께 샤먼의 필수적인 무구라는 점을, 銅器에 새겨진 농경과 수렵장면은 일반생활 묘사로 보기보다, 일종의 기원을 나타낸다고 하였다.⁵⁾

金鍾一은 한국 중서부지역에 분포하는 청동유물과 유적을 파악하여, 한강유역, 금강유역, 전북남부와 전남지역으로 祭儀圈을 설정하고 그 중 금강유역을 중심으로 충남과 전북일부지역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먼저 청동유물의 조합을 3등급으로 나누었는데, 1등급은 이형동기, 동령, 동검 등의 무기를 가지고, 2등급은 동경과 무기류, 3등급은 무기류만 가지고, 이들 종류와 함께 유물개체수도 고려하였다. 이 구분은 이형동기와 동경이 의례용이라는 전제하에 특별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이루어졌으며, 무기류부장이 성과 연령의 반영이 아닌 신분

4) 神이라는 단어와 결합되어, 의미가 확장되어 2차적으로 해석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먼저 神事는 신을 위해 인간이 제사지내는 일과 같이 신과 관련된 행위를 의미하는데, 신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 하는 행위와는 거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神策이라는 것도 신의 뜻을 묻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를 지칭한다.

그리고 민속에서 보이는 神樂, 神舞는 신을 위한 음악이고, 이 음악을 연주하고, 춤을 추면 신이 내리고, 신을 부르기 위해 하는 것인 점 등을 보아, 神音具라는 용어를 신과 관련된, 신을 위한 제사나 의례에 사용된 음구를 지칭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伊藤彰·牛尾三千夫·國分直一, 『周防祝島の神舞神事』, 『えとのす』 8, 新日本教育圖書, 1977, pp.76~82.)

5) 李健茂, 『韓國 青銅儀器的 研究-소위 異形銅器를 中心으로』, 漢陽大學校 碩士學位論文, 1987.

의 반영이라는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동 논문에서 이형동기 소유의 피장자의 성별에 대한 추정에서는 무기류 부장을 근거로 남성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높은 등급의 경우 의기를 소유하므로, 해계모니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진 행위로 추정하였다.⁶⁾ 기본적으로 시간의 흐름을 크게 고려하지 않은 공시적 관점에서 이루어진 연구라고 할 수 있다.

李清圭는 영남지역에서 나오는 청동기와 청동기부장묘를 중심으로, 시기 구분부터 시작해서 사회, 경제, 종교적인 측면을 접근하였는데, 三韓의 종교에 대해서는 『三國志』에 나오는 의례 행사와 관련된 단편 기록을 통해서 어느 정도 살필 수 있다. 청동기를 매납한 제사유적이 존재하였을 가능성과 아울러 종교적인 기능과 상징을 갖고 있는 청동기를 통해서도 접근하였다. 또 동탁을 높이 10cm 미만의 소형, 길이 10~15cm 정도의 중형, 그리고 그 이상의 대형으로 나누어, 소형동탁은 크기가 작으므로 神木에 매달지 않고, 중형을 신목에 현수한 것으로 보았다. 더불어 日本 鳥取縣에서 출토된 선각회화가 그려진 토기에서, 나무 양쪽에 매달린 것을 동탁으로 보고, 한 쌍이라는 세트 관념과 우리나라 분묘에 동탁이 한 쌍으로 부장되는 상황을 연결시켰다. 또 神木에 매단 것으로 보이는 器物을 개인 무덤 부장상황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어쨌든 사제왕의 무덤에 제의도구로서 기원전 1세기경에 동탁이 부장되었다가 정작 소도의 제의 행사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전문 제사장, 천군이 출현하면서 동탁은 기원후 1세기 이후에는 무덤에 부장되지 않는 양상으로 해석하였다.⁷⁾

朴泳姬는 소리를 내는 鈴과 鐸을 종의 용도-시각 알림과 예보, 교리적 의미, 상징적 행위 취할 때 이용, 주술적 힘을 가져 악령 물리치고 사심 쫓고 제의나 연회에 사용-에 근거하여, 용도와 의미를 유추하고, 형태별·타격법별 분류를 하였다. 그리고 삼한시대에서 통일신라에 이르는 시기까지 소개하였다. 동시에 문양도 식물문, 기하문, 神將像文 등을 묘사하였다. 재료와 제작기법도 소개하였다.⁸⁾ 그러나 전반적으로 소개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었다.

종합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기존의 연구 방향은 주로 하나의 기준이 되는 유물로 편년과 분포과약을 중심으로 연구되어 첫째, 신음구가 한국식동검기 가운데 한 시기에 귀속되는 것을 밝힐 뿐, 유물자체에 대한 시공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를 피하고 있다. 둘째, 용도에 관해서는 단순히 특이한 형태를

6) 金鐘一, 『韓國 中西部地域 青銅器遺蹟·遺物の 分布와 祭儀圖』, 『韓國史論』 31,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1994

7) 李清圭, 『嶺南지방의 青銅器에 대한 論議와 解釋』, 『嶺南考古學』 30, 嶺南考古學會, 2002.

8) 朴泳姬, 『韓國 銅鈴과 銅鐸에 대한 研究』, 淑明女子大學校 碩士學位論文, 1987.

근거로 의기로 추정하였다. 그리고, 홑구를 다룸에도 소리를 내는 도구라는 측면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다. 셋째, 신음구 가운데 형태가 다른 것도 동일한 상황에서 사용하였을 것으로 파악하고, 넷째, 동탁과 같이 동일기종이라도 지역에 따라 변용되었을 가능성을 간과하였다.

본고에서는 삼한시대의 청동음구 가운데 銅鈴類와 銅鐸類를 정리하고, 형태와 크기별로 분류하며, 첫째 발생원리를 밝히고자 한다. 둘째, 이들의 사용시기와 변화양상을 살펴 시기성을 밝히고, 지역적으로 구분되는 속성을 찾아 공간성과 그 원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셋째로는 신음구로 기능하는 것을 추출하기 위해 출토유구의 성격과 출토위치 특히, 연역적 방법을 이용하여 신음구로 기능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청동음구를 추출하여, 사용방법과 의미를 살펴보고, 넷째 문헌 및 민속학적 자료를 이용하여 보다 神音具의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행위와 역할, 그리고 그것이 가지는 의미를 도출해내고자 한다.

II. 靑銅音具의 종류

청동이라는 금속재질로 제작된 음구는 악기 분류에서 재질이 固體彈性振動體인 까닭에 소리발생은 기체 자체의 진동에 의하므로 體鳴樂器⁹⁾에 포함되고, 소리 내는 방법상 타격을 통해 소리를 내므로 打奏樂器로 분류된다. 다시 體鳴音具끼리의 충돌에 의해 發音¹⁰⁾하지 않고, 補助加擊物體가 器體에 부딪혀 소리를 유발하므로 間接打奏악기로 세분된다.¹¹⁾ 이런 소리의 원천은 器體의 진동이 음향이 되는 것으로 기체가 두드려 지면, 기체의 떨림으로 공기가 진동하고 그것이 귀의 고막을 진동시키면, 다음에 그것이 두뇌에 전달되어 종소리를 감지하는 경로가 청동음구의 음향발성의 원리이다.¹²⁾

9) 自鳴樂器(autophone)는 固體彈性振動에 의해 發音한다는 의미를 가지나, 그것이 스스로 소리를 낸다는 의미로 오역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자체가 소리가 난다는 體鳴樂器(idiophone)로 명칭하고 있다.

소리내는 방법은 치기, 두드리기, 줄 튕기기(뜯기), 문지르기, 흔들기, 바람을 보내기(바람 불어넣기) 등이 있다.

10) 심벌즈나 바라 같은 것은 한 쌍이 세트를 이루면서 그것이 서로 부딪혀서 소리를 내는 것이다. 즉, 體鳴音具끼리의 충돌에 의해 發音되는 것으로 直接打奏樂器를 가리킨다.

11) 심벌즈나 四拍子와 같이 타주악기들이 부딪혀서 소리를 내는 연주법이 直接打奏法이다. 그러나 진동체들끼리의 타격이 아닌 다른 보조적인 도구를 이용하여 소리를 유도하는 연주법이 間接打奏法이다.

삼한시대의 청동음구에는 동령류와 동탁류가 있다. 물론 검과형동기나 원개형동기, 방패형동기와 같이 板形을 하여, 두드려서 소리가 날 만한 것이 있다. 그러나 이들 기물과 관련해서는 용도를 음구로 단정할만큼의 근거는 축적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이들은 연구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동령류와 동탁류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리나라에서는 청동제 間接體鳴樂器¹³⁾를 기본적으로 鈴, 鐸, 鐘으로 나누고 있고,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계를 가졌던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먼저 용어에 대한 정리가 되어있는 중국에서의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中國에서는 鈴을 有舌有鈕¹⁴⁾의 것을 지칭하는데, 舌이 존재하고, 器體懸垂를 위해 상단에는 鈕을 갖추고 있으며, 하방에 트임이 있다. 즉 상단에 설을 매달아 하단으로 늘어뜨려서 舌과 器體 內面의 부딪힘으로 소리를 발생시키고, 그 소리가 하단부의 트임을 통해 공기의 진동이 외부로 전이되는 間接打奏體鳴樂器¹⁵⁾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다. 鐸은 有舌有柄¹⁶⁾으로 역시 間接打奏體鳴樂器의 일종인데, 하방이 트여 있고, 舌이 장착되어 있다. 소리는 舌과 器面의 마찰에 의해 발생하지만, 柄部를 가짐으로써 사람이 손으로 병부를 움직여야 소리를 발생하고, 搖鈴이 여기 해당되며, 密敎에서 보이는 金剛鈴¹⁷⁾이 이 일종이다. 鐘은 無舌有鈕¹⁸⁾의 것으로, 身부분을 외측에서 打棒으로 쳐서 소리 내는 것으로 역시 間接打奏體鳴樂器¹⁹⁾로 분류된다.

12) 廉永夏, 『韓國梵鐘에 관한 研究』, 『梵鐘』 6, 韓國梵鐘研究會, 1983, pp.25~34.

13) 마이용에 의하면 약기는 다음의 4가지로 분류된다.

自鳴樂器(autophone): 固體彈性振動에 의해 發音

膜鳴樂器(membranophone): 팽팽하게 당겨진 막의 진동에 의해 소리냄

絃鳴樂器(chordophone): 팽팽하게 당겨진 현의 진동에 의해 소리냄

氣鳴樂器(aerophone): 공기 흐름에 의해 진동을 발생시켜서 소리냄

이 중 自鳴樂器(autophone)는 固體彈性振動에 의해 發音한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지만, 스스로 소리를 낸다는 의미로 오역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자체가 소리가 난다는 體鳴樂器(idiophone)로 명칭하고 있다. 체명악기는 다시 직접체명악기와 간접체명악기로 나뉘는데, 전자는 體鳴音具끼리의 충돌에 의해 發音되는 것을 가리키고, 후자는 진동체들끼리의 타격이 아닌 다른 보조적인 도구를 이용하여 소리를 내는 것이다.

14) 武末純一, 『銅鐸』, 『稻』と青銅と鐵, 日本書籍, 1985.

15) 山田光洋, 『樂器の考古學』, 同成社, 2001

16) 武末純一, 『銅鐸』, 『稻』と青銅と鐵, 日本書籍, 1985.

佐原眞, 『日本の原始美術7-銅鐸』, 講談社, 1979

17) 香取忠彦, 『梵音具』, 『新版 佛敎考古學講座』 5, 雄散閣, 1976.

18) 武末純一, 『銅鐸』, 『稻』と青銅と鐵, 日本書籍, 1985.

19) 山田光洋, 『樂器の考古學』, 同成社, 2001.

우리나라에서 용어 자체에 대해 정의된 바는 없으나, 현존물과 현재 명칭되고 있는 것을 중심으로 기본형태와 발생원리를 중심으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먼저 鈴은 전면이 器壁으로 둘러싸인 中空의 것으로, 내부에는 丸이 들어있어, 丸과 器體內壁의 접촉에 의해 發音되고, 발생된 소리를 방출하기 위한 切開口가 존재한다. 鐸은 下方이 트여있고, 내부에 舌를 垂下하여 舌과 기체내벽의 충돌로 소리를 낸다. 鍾은 하방이 트여있고 舌이 장착되지 않아, 따로 발생도구로 打棒을 이용하여 외부에서 쳐서 자극을 주는 것이다. 이들은 모두 간접타주체명악기에 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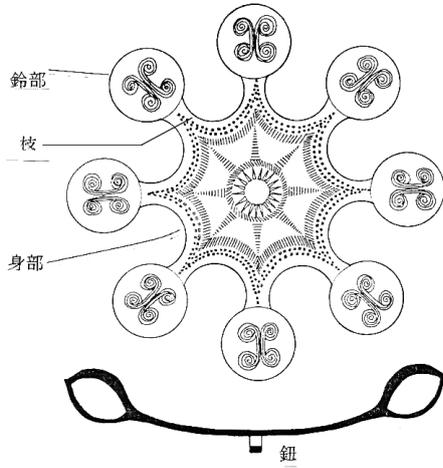
1. 동령류

丸이 기벽에 구르면서 소리를 낸다는 점을 공통요소로 분류된 것이다. 삼한시대 동령류는 형태에 따라 八珠鈴, 雙頭鈴, 組合式雙頭鈴, 竿頭鈴, 蠶形鈴 등으로 나뉘어진다. 또, 착장방법에 따라 鈕가 있어 끈과 같은 것으로 매어지는 것과 鑿部에 막대가 꽂혀지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전자에는 八珠鈴과 蠶形鈴이 해당된다. 후자에는 雙頭鈴, 竿頭鈴이 포함된다. 이 밖에도 組合式雙頭鈴이나 병부동령 등이 있는데, 조합식쌍두령은 특별히 장착을 위한 부분이 존재하지 않아 착장법을 확인할 수 없으나, 조합시 만들어지는 環을 이용한 것은 아닌가 싶다. 또, 경주 입실리에서 발견된 이형동령은 축부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그 부분에 柄이 착장되고, 못과 같은 것을 관통시켜 고정했던 것으로 보인다.

가. 八珠鈴

身部 중심으로부터 8稜狀을 이루면서, 8개의 枝를 만들고, 그 끝부분에 둥근 鈴을 하나씩 부착하고 있다. 身部 중심에서 가장자리의 鈴部쪽으로 오면서 끝이 완만하게 솟아올라 身部の 한쪽 면이 볼록한 형상을 띤다. 볼록한 면 중앙에는 반원형의 소형 고리가 달려, 끈을 끼워 달아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문양은 대체로 신부의 고리가 달린 면의 반대편 전체에 걸쳐 선각되는데 가장자리의 문양은 외곽형태를 따라 集線文이 음각되고, 內區는 중앙을 향해 집적되도록 문양이 배치되는 경향이 보이나, 傳 論山 출토품은 鈕가 있는 부분에도 반대면과 동일하게 시문된 모습을 보여준다. 鈴部의 형태는 球形의 것과 한쪽이 납작한 형태의 것으로 2가지로 구분된다. 구형의 령부를 가진 것은 4개의 유엽형 절개구는 등간격으로 배치되어 있고, 全南 和順 大谷里 출토품과 傳 낙동강 출토품이 여기 해당한다. 령부의 한부분이 납작한 면을 하고 있는 것은 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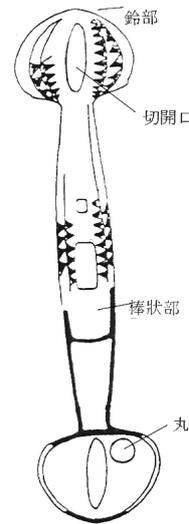


<圖1> 팔주령의 형태와 구조

불규칙하면서도 산만한 소리를 내게 된다.

나. 雙頭鈴

중심부가 볼록하고 끝부분으로 갈수록 가늘어지는 棒狀部와 그 양 끝에 부착된 鈴部로 구성되었다. 鈴部는 중공으로 球形이나 만두형을 하고 있다. 세로로 杏仁形의 절개구가 같은 간격으로 4개 배치되고, 내부에 丸이 들어있다. 棒狀部는 칸막이를 통해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것과 칸막이 없이 일체로 된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봉상부 중간에는 장방형의 孔이 있는데, 막대를 꽂는 삼입공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 옆으로 小孔이 있는데, 주물시 내외를 연결시킨 구멍으로 보인다.²⁰⁾ 봉상부는 단면 원형에 中空로 되어 있어, 鈴과 비진동체인 나무막대 사이에 간격을 둬으로써 떨림이 어느 정도 방해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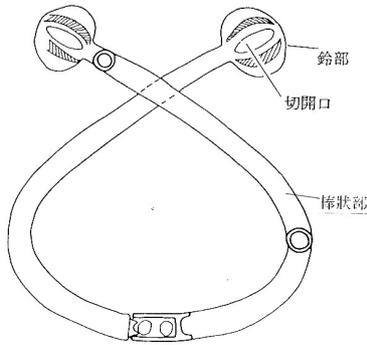
<圖2> 쌍두령

작한 부분에는 2개의 杏仁形의 切開口가 존재하고, 반대쪽의 볼록한 부분은 1쌍의 소용돌이문양이 시문된 것으로 傳論山 출토품과 傳德山 출토품이 전한다.

鈴部에는 각각 銅丸이 한 개씩 들어가 있어, 소리를 내도록 되어 있고, 8개의 鈴部로 조합된 한 개체를 움직이면 모든 鈴이 울러, 단조롭지 않고,

20) 國立中央博物館, 『韓國의 青銅器文化』, 凡友社, 19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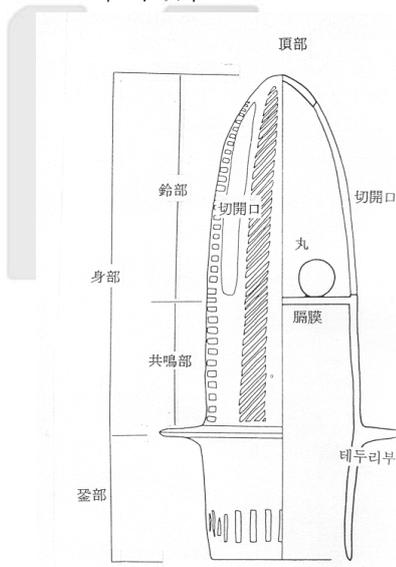
다. 組合式雙頭鈴



<圖3> 조합식쌍두령의 형태

하나의 만곡한 봉상부와 그 끝에 달린 하나의 鈴部로 이루어진 것이 2개가 조립되어, 양 끝에 령을 부착한 한 개체를 만든다. 봉상부의 한쪽 끝은 각각 축과 삽입공으로 되어있어, 그것을 통해 양자가 조립되고, 그 옆에는 소공이 존재하는데 고정을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두 개의 봉상부는 서로 대칭되게 굽어져 있어, 조립했을 때 서로 교차하면서 環을 만든다. 봉상부는 역시 中空의 형태로 감쇠를 줄이는 효과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라. 竿頭鈴



<圖4> 간두령의 형태와 구조

소리는 膈膜에 있는 1~2개의 구멍을 통해 상·하부 사이에 공기의 흐름과 함께 유동하고, 절개구를 통해 외부로 방출된다. 그러므로 상부는 鈴部, 하부는 共

전체적인 형상은 포탄형이다. 소리를 내기 위한 身部和 막대를 꽂기 위한 釜部, 그리고 신부와 공부를 경계지어주는 테두리부로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직경이 약 4cm 되는 釜部를 가지고 있으므로, 막대가 삽입되었다고 생각되는 청동제 금구로 Pole Top²¹⁾의 일종이다. 전체 길이는 약 15cm 내외이고, 테두리부는 전체 길이를 보았을 때, 공부 끝부분에서부터 20%~30%되는 부분에 위치한다. 신부는 中空으로, 膈膜을 통해 上·下로 나뉜다. 상부에는 4개의 절개구가 같은 간격을 두고 상하로 길게 격막이 있는 곳까지 뚫려 있는데 내부에는 직경 1cm 가량의 銅丸이 삽입되어 소리를 유발한다. 이렇게 발생된

21) 水野清一 外, 『圖解 考古學辭典』, 東京創元社, 1974.

鳴部라 할 수 있다. 신부 내에서 鈴部와 共鳴部의 비율은 격막의 위치에 따라 상부 30%~80%에 이르기 까지 다양하게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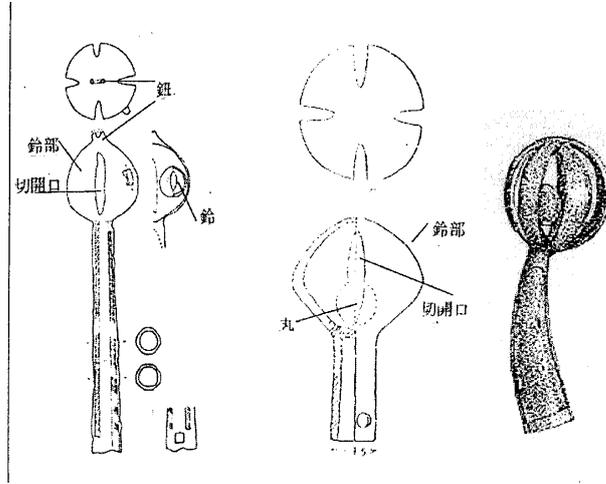
마. 기타

앞에서 鈴具를 형태별로 나누어서 다루었으나, 蠶形鈴과 柄部銅鈴, 錨形鈴은 비록 三韓時代 동령류이지만 수량이 적은 관계로 별도로 분리시켜 다루지 않고, 간단하게 형태를 언급하도록 하겠다.

누에고치 모양이란 점에서 명칭이 유래된 蠶形鈴이 있다. 2개의 鈴部가 있는 身部와 身部 상단에 부착된 鈕로 구성된다. 신부는 중간이 잘룩하게 묶인 형태로 좌우

<圖5> 잠형령의 형태와 구조

로 鈴部가 각각 있는데, 아래로 처져 있다. 중심의 잘룩한 부분 위에 반원형 鈕가 달렸다. 鈴部 上·下와 양 측면에 각 1조의 긴 투공이 뚫렸고, 잠형령 내부에도 가운데는 칸막이가 있어 두 鈴部를 구획하고, 鈴部에는 각각 1개의 銅丸이 들어있다. 전체길이는 약 10cm~20cm에 이른다. 현존하는 유물로는 小倉수집품, 전 공주 출토품, 경주 구정리 출토품, 이양선박사 수집품, 평양 정백동 출토품의 것으로 5예에 불과하다. 그 중, 小倉수집품, 傳 공주 출토품은 절개구가 두 鈴部를 이어주는 형상으로 뚫려있고, 慶州 九政里 출토품, 이양선 박사 수집품, 평양 정백동 출토 잠형령은 각 鈴部에 절개공이 따로 뚫려졌다. 이렇게 형태상 두 가지로 나누어지나, 아직 그것이 어떤 사실을 반영하는지는 미상이다.



<圖6> 병부동령의 형태

柄附銅鈴²²⁾은 자루가 부착될 수 있도록 축부가 있고 그 하단에 소공이 뚫려 있다. 경주 입실리 출토에 송실대 소장의 것은 구형의鈴部를 가지고, 병부는 한쪽 방향으로 만곡하고 있으며, 역시 하부에 구멍이 하나 있다. 길이는 11cm이다.²³⁾ 또 다른 하나는 초포리 출토의 것과 같은데, 병부의 길이가 짧고, 전체 길이는 5.9cm이고,鈴幅은 3.8cm이다.咸平草浦里²⁴⁾ 출토의 병부동령은 막대가 삽입되도록 공부를 가진 것이다. 공부는 곧으면서 하단에 이룰수록幅이 넓어지는 형상을 하고, 속에는 끝이 뾰족하게 깎인 나무가 꽂히게 되어 있고, 단면은 팔각형이다. 전체 길이는 17cm, 폭 4.2cm이며, 소뉴의 폭 1.5cm이다.鈴部에 부착된 령은一般銅鈴보다 훨씬 큰 직경이 4.3cm 가량이고,球形으로鈴部の頂부와 한 측면에는 각기 ㄷ자형의小鈕가 한 개씩 달려 있다.鈴部 내부에는球形의 작은銅鈴이 들어있는母子방울式으로小鈴에도 역시切開口가 4개 나있고, 그 안에 직경 0.6cm 정도의銅丸 1개 들어가 있다.

錨形鈴²⁵⁾은 경주 입실리에서 출토된 것으로 닳모양을 하고 있다. 단면이 직사각형인 편평한 축에柄을 끼우도록 되어 있고 끝부분에는 원형의 소공이 뚫려 있어, 병부를 고정시킬 수 있게 한다. 그 반대쪽 끝에는 좌우로 뻗어 만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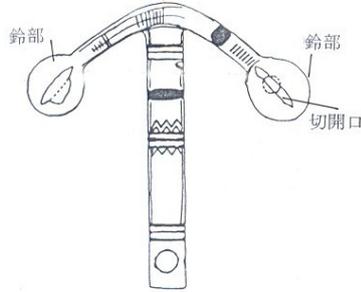
22) 朝鮮總督府, 『大正十一年度古蹟調査報告』 第2冊, 1925

23) 金廷鶴 編, 『韓國の考古學』, 河出書房, 1992.

이건무, 『韓國 靑銅儀器의 研究-소위 異形銅器를 中心으로』, 漢陽大學校 碩士學位論文, 1987.

24) 이건무·서성훈, 『咸平草浦里遺蹟』, 國立光州博物館, 1988

25) 朝鮮總督府, 『大正十一年度古蹟調査報告』 第2冊, 1925



<圖 7> 모형령

한 枝를 붙이는데, 양 끝에는 구형의 鈴을 달고 있다. 鈴部에는 세로로 유엽상의 절개구 4개가 등간격으로 배치되고, 내부에 동환이 들어있다. 총고는 12.7cm이다.

鈴은 금속재질로 만들어져 타격을 통한 진동으로 소리를 내는 것으로, 鈴部와 직접 이어지는 부분은 내부가 빈 중공상으로 두어, 소리의 진동을 높여주는 共鳴部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므로 진동을 전달하지 못하고 흡수하는 성격을 가진 사람의

손이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설계되었다. 이런 점으로 보아, 소리는 둔탁하지 않고, 떨림이 많은 예리한 소리일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좁은 한정된 공간 내에서 丸이 기면에 부딪혀서 발음하므로, 흡의 高低와 특정 박자나 리듬이 없고, 다만 흔드는 강도에 따라 흡의 強弱과 빠르기는 차이가 날 뿐, 규칙적이거나 의도적인 음감을 표현할 수 없다. 그와 더불어 일정하게 고정되거나, 완만한 흐름을 가진 춤사위와는 어울리지 않고, 엄숙하고 절제되며 장엄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鈴을 흔드는데 따른 즉흥성이 강하다. 鈴은 器壁이 얇아서 소리의 지속성이 떨어지고, 短音を 낸다.²⁶⁾ 그러므로 소리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움직임이 요구되고, 그런 움직임의 결과로 진동이 중첩²⁷⁾되어 소리가 계속 된다.

여기서 보이는 동령은 함평 초포리와 경주 입실리 출토의 柄附銅鈴과 간두령을 제외하면 복수의 동령류가 합쳐져 하나의 개체를 구성한다. 초포리의 병부 동령도 단수의 鈴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中空 내 小鈴이 들어있고, 小鈴에도 丸이 들어 있다. 간두령은 비록 한 개체가 하나의 鈴으로 구성되는 것이나, 후술할 것이지만 출토상황상 1쌍이 세트로 나타나고 있다. 복수의 鈴은 共鳴²⁸⁾을 통

26) 소리는 진동에 의해 유발되는데 일반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저항, 마찰 등의 제동으로 진폭이 줄어드는 減衰振動을 한다. 단일 개체의 타악기에 힘을 가했을 때 진동체의 길이와 크기, 밀도 등에 따라 고유진동을 하게 되는 것과 관계된다.

27) 단진동운동에 의한 진동이 여러 겹친 진동은 진동의 유지와 진폭의 확대에 효과적이다.

28) 共鳴(resonance)은 진동계의 고유진동수와 같은 진동수를 가진 외력을 주기적으로 받아 진동이 심해지고 진폭도 뚜렷하게 증가한다. 또 진동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을 경우 양쪽의 진동수가 같으면 공명에 의해 에너지를 서로 교환하기 쉬우므로, 공명의 효과는 극대화된다. 그러면, 팔두령, 쌍두령, 병부동령 등은 하나의 개체에 여러 개의 鈴部가 부착되어 있는 것으로 그들 사이의 상호 에너지 교환으로 진폭이 커지고 소리는 극대화된다.

해 소리의 증폭을 일으켜 개개의 鈴이 울리는 소리를 합한 것 보다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삼한시대의 동령은 불규칙하면서 강하고 빠른 소리를 크게 내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2. 동탁류

길이 24.0

鐸은 하방이 트이고 벌어진 동형의 鐸身부와 그 上面에 부착된 鈕, 내부 상부에 매달려 늘어뜨려진 舌로 이루어져 있다. 횡단면은 납작하게 눌러져 杏仁形을 하고 있다. 合范의 鑄造品으로 舌이 鐸身부의 器體 內壁과 부딪혀 소리를 낸다. 舌은 일반적으로 탁신보다 길고, 탁신 내면에 설이 부딪히는 곳으로 내면돌대가 있으며, 그 부분의 마모로 인해 실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鈕는 현수하려는 목적에서 부착된 것으로 보인다. 鈕의 굽기는 양 끝부분이 굽고 가운데부분으로 갈수록 가늘어지는 형상을 하고 있는데, 현수했을 때 鈕와 탁신이 분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된다.



<표1> 높이와 하방폭으로 본 동탁류 분류

합범으로 제작되는데, 바깥틀과 안틀을 고정시키기 위한 흔적으로 형지공이 있으며, 용범이 맞물리는 부분에 주물이 흘러나온 흔적이 남아 있다.²⁹⁾ 재질은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것이 동탁이므로 당연히 청동이다. 하지만 鐸은 대체로 청동의 재질을 가지지만, 간간히 철탁이나 금동탁도 있다.

나뭇가지나 장대, 기타 다른 물체에 걸리는데 鈕가 고리역할을 해서 바로 걸리거나, 아니면 鈕에 끈이나 고리를 묶어서 걸었을 것이다. 소리를 내는 방법은 풍탁처럼 자연스러운 바람의 움직임에 의한 것과 끈을 매달아서 그것을 잡

29) 합범으로 인해 새어나온 주물이 점차 장식화와 과장, 강조를 통해 일본의 見る銅鐸의 특징인 鱗가 출현한 것으로 생각된다.

아당기는 방법이 상정된다.

<표1>에서 보이는 것처럼 첫째, 동탁은 크기에 따라 두 그룹으로 나누어진다.³⁰⁾ 전체길이와 하방의 폭을 기준으로 보면, 전체길이가 약 9cm~20cm, 하방 폭이 6cm~12cm에 달하는 한 그룹과, 전체길이가 약 3cm~6cm이면서 하방 폭이 약 2cm~5cm에 이르는 그룹으로 양분된다. 이들을 편의상 전자를 銅鐸, 후자를 小銅鐸이라고 부르코자 한다.³¹⁾ 동탁류는 기본적인 구성 요소는 탁신과 뉴, 설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는 기본적으로 같으나, 형태를 기준으로 鈕의 형태, 문양, 鐸身하방 형태 등에서 차이가 나므로 그것들을 두 번째 분류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가. 大銅鐸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특수한 동탁으로 한국식 동탁으로 불리기도 한다. 일본에서는 일본식 동탁과 구분하기 위해서 ‘朝鮮式小銅鐸’으로 부른다.³²⁾ 통형을 기본으로 하면서 하단부로 갈수록 鐸身은 직선적으로 벌어진다. 탁신의 上面에는 長徑의 양 끝을 半環形의 鈕가 가로지르면서

<圖8> 동탁의 구성요소

30) 일본에서 출토되는 대형 無舌을 한 동탁까지 범주에 넣어, 높이 10cm 미만의 소형동탁, 길이 10~15cm 정도의 중형동탁, 그리고 그 이상의 대형동탁으로 3분하고, 우리나라에는 중형과 소형이 존재한다고 정리되기도 한다. (李清圭, 『嶺南지방의 靑銅器에 대한 論議와 解釋』, 『嶺南考古學』 30, 嶺南考古學會, 2002.)

그러나,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출토된 청동음구만을 대상으로 하여, 높이와 하방장폭의 크기로 동탁과 소동탁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31) 日本에서는 彌生時代 近畿지방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높이 20cm 이상의 “見る銅鐸”을 “銅鐸”이라고 부르고, 우리나라에서 주로 보이는 길이 9cm~20cm에 이르는 것을 “小銅鐸”, 그 이하의 것을 “馬鐸”으로 구분한다. 그러나 동탁과 소동탁을 크기를 기준으로 구분한 명칭을 쓰면서, 높이 3cm~6cm의 동탁은 용도상 이름지어 명칭을 붙인 기준이 일관되지 않고 있다. 더구나, 마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실제 마탁으로 작용했는지에 관한 진위여부를 검증하는 과정이 생략되어 있으므로, 재고의 여지가 있다.

32) 全榮來, 『韓國 靑銅器文化의 研究-錦江流域圈을 中心으로』, 『馬韓百濟文化』 6, 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研究所, 1983, p.110.

藤森榮一, 『銅鐸』, 學生社, 1977.

比田井 克仁, 『關東における『小銅鐸』祭祀について』, 『考古學雜誌』 86-2, 日本考古學會, 2001.

梅原末治·藤田亮策, 『朝鮮古文化綜鑑』 第1卷, 養德社, 1947.

부착되는 外緣附鈕와 상면 가운데 부착되기는 中間鈕가 있다.³³⁾ 舌의 垂下는 鈕에 舌이 매이거나 실이나 천이 매개가 되어 鈕와 舌을 연결하여 매달리기도 한다. 전체길이는 약 9cm~20cm이고, 하방장폭은 6cm~12cm이다. 종단면은 사다리꼴을, 횡단면은 杏仁形을 하고 있다. 형지공은 일반적으로 한 면에 각각 한 개씩 모두 두 개가 있는 편이고, 합범흔은 나타나지만 일본의 동탁에서처럼 특별히 두드러지게 鱗가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탁신의 표면은 無文이다.

그러나 몸통의 벌어진 형태, 뉴의 형태, 형지공의 위치와 크기, 내면돌대의 유무에는 차이가 있고, 그것에 따라 여러 형식으로 나누어진다. 그 중 동탁 자체의 계측치에 의한 선후관계 파악을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탁신 내에서 형지공이 상위부, 중위부, 하위부에 있다는 속성과, 탁신 축선의 경사도의 차이가 시공성을 반영한다는 가설을 세울 수 있었다.³⁴⁾

나. 小銅鐸

크기는 주로 전체길이 약 3cm~6cm이면서 하방 폭이 약 2cm~5cm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鈕, 鐸身, 舌 등의 구성요소는 동탁과 기본적으로 일치한

33) 전영래는 우리나라 동탁에 뉴를 부착하는 것이 BC6세기경 중국에서 鈕를 부착하기 시작한 것과 관련해서 한국식동탁이 형식상으로는 독창성을 가지고 있으나, 중국의 그런 제조기법을 도입했을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있다. 더불어 中國式鐘이 鈕를 蓋部 중앙에 부착시키고, 韓國式鐘은 兩側 肩部를 잇는 半環狀이라는 차이를 지적하였다.

全榮來, 『韓國 青銅器文化的 研究-錦江流域圈을 中心으로』, 『馬韓百濟文化』 6, 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研究所, 1983, pp.110~111.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무문의 동탁에도 鈕를 견부에서부터 올리는 것 외에 중간부분에 부착하는 것이 보이는 점에 대해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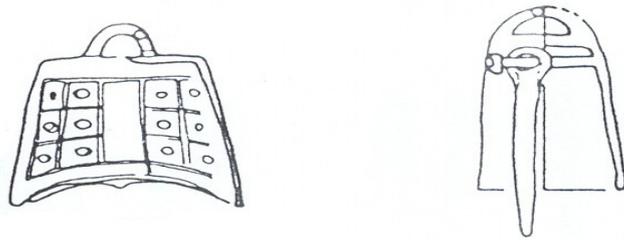
34) 형지공이 큰 것은 상부 가까이에 있고, 형지공이 작은 것은 상부에서 떨어져서 위치한다는 것과 상부와 하단부의 長徑比를 통해 시기를 설정하였는데, 型持孔의 크기가 작으면서 상하단부 비율이 작은 것일수록 이른 시기라고 판단한 바 있다. 그것을 기준으로 괴정동 탁, 운성리 탁, 부조예군묘 탁, 오야리 탁에서 상부장폭과 하단장폭의 비율을 비교해 보면, 괴정동 탁이 1.36, 운성리 탁이 1.77과 1.78, 부조예군묘 탁이 1.85, 1.81이다. 입실리와 오야리 탁은 괴정동 탁에 보다 가까운 편이므로, 순서는 '괴정동→오야리·입실리→운성리·부조예군묘'라고 한다. 田村晃一, 『朝鮮半島からみた日本の青銅器』, 『MUSEUM』 311, 國立東京博物館 1977

夫租蕤君墓는 銀印이라는 표식유물로 인해, 절대연대를 추정할 수 있는데, 강기경은 前漢 宣帝 元年5年(BC74)를 상한으로 하고 늦어도 後漢 光武帝 建武6年(BC40) 밑으로 내려가지 않을 것으로 파악하였다.

岡崎敬, 『夫租蕤君 銀印をめぐる諸問題』, 『朝鮮學報』 46, 朝鮮學會, 1968

오야리23호는 방격규구사신경의 반출로 新~後漢초기에 해당하고, 운성리는 오수전이 탁설로 사용되었으므로 前漢末~後漢初로 추정된다. 『대동강유역고분발굴보고』, 『고고학자료집』, 1965

다. 크기뿐만 아니라 형태에서도 대동탁과 구분되는데, 첫 번째로는 사다리꼴 단면에 하방이 내만하면서 中間鈕를 가지고, 문양이 주출된 유형의 것이 대동탁과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사다리꼴 단면에 하방이 일직선이며 外緣附鈕를 부착하면서, 탁신 표면은 무문양인 것으로, 이것은 대동탁을 그대로 축소해둔 것 같은 외형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설의 수하방법상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圖9> 소동탁의 종류(左: 有文小銅鐸, 右: 無文小銅鐸)

舌을 垂下하여 舌이 器壁과의 충돌을 일으켜 소리 낸다는 점에서는 동탁과 발음방법이 같지만, 舌의 착장방법에서는 약간 차이가 난다. 동탁은 탁신 상부(舞部)에 1~2개의 구멍이 있어, 그 구멍을 통해서 鈕와 舌 또는 紐를 매개로 鈕와 舌이 연결된다. 그러나 소동탁은 동탁과 같은 방법으로 舌의 垂下가 이루어지는 것도 있으나, 탁신 상부에 구멍이 없이 마감되어있고, 탁신 내부 위쪽에 횡가하는 捧이 하나 있고, 거기에 舌을 매달게끔 된 것도 있다. 지금까지의 사례로 보아서는 탁신 내부에 봉이 설치된 것은 한국식동검Ⅲ기에 해당하는 경주 죽동리유적에서 채집된 무문의 외연부뉴를 한 소동탁이 있다. 이런 수하방식은 日本諏訪神社에서 사용되었던 철탁³⁵⁾에서 봉이 탁신 내 상부를 가로지른다는 점이 유사하다.

소리 발생의 원리는 舌이 탁신 상부 조합되어, 흔들림에 의해 器體 內壁에 충돌하여 일어나기도 하지만, 소동탁 문양의 마모나 외면의 마찰흔 등으로 미루어 보아, 복수의 鐸이 하나의 막대나 나뭇가지에 현수되어, 鐸들끼리의 외면 충돌에 의해 소리를 발생시켰을 가능성도 있다.

35) 藤森榮一, 『銅鐸』, 學生社, 1977, p.194.

Ⅲ. 銅鈴、銅鐸의 分析

1. 동령、동탁의 시기성

가. 銅鈴類

(1) 간두령

간두령은 외형상 테두리부의 형태와 표면의 精粗에 차이가 보이는데, 이 점이 시간성을 반영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테두리부와 표면정도가 시간의 흐름을 보여줄 것³⁶⁾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테두리부는 완만하게 외반하는 형, 옥개형, 직선형의 세 가지로 분류하고, 표면 문양 및 정면 정도는 粗質과 精質의 두 가지로 나누어 보았다.

<표2> 테두리부의 형태를 통한 간두령의 형식

| 출토 및 발견지 | 精粗 | 테두리형태 | 분류 |
|----------|----|--------|----|
| 傳 충남 논산 | 精 | 완만외반형 | a |
| 傳 충남 덕산 | 精 | 완만외반형 | |
| 傳 낙동강 | 精 | 완만외반형 | |
| 회순 초포리 | 粗 | 완만외반형 | b |
| 함주 조양리 | ? | 완만외반형? | |
| 傳 낙동강-1 | 粗 | 완만외반형 | |
| 경주월성입실리 | 粗 | 완만외반형 | |
| 경주월성죽동리 | 粗 | 옥개형 | c |
| 대구 신천동 | 粗 | 직선형 | d |

<표3> 테두리부의 형태와 정조

이 외형적 요소를 종합하면, 다음의 4가지로 구분된다.

- a. 완만하게 외반하는 테두리부에 정

36) 이진무·서성훈, 『咸平 草浦里遺蹟』, 國立光州博物館, 19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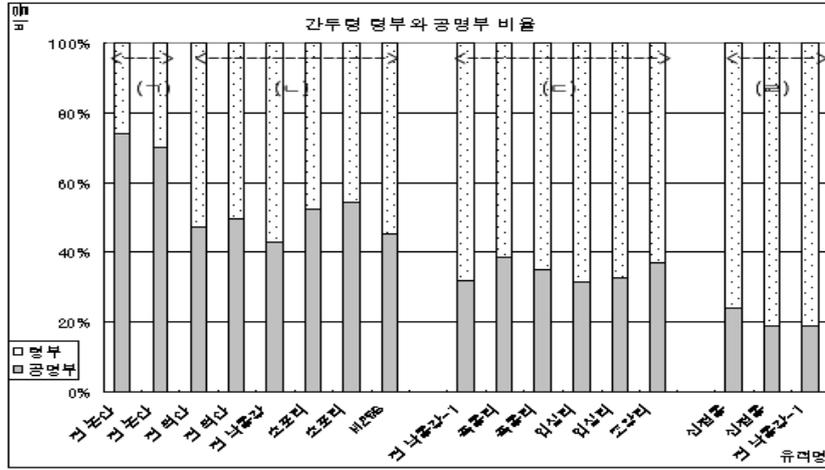
질인 것

- b. 완만하게 외반하는 테두리부에 조절인 것
- c. 옥개형의 테두리부를 가지면서 조절인 것
- d. 직선형의 테두리부에 조절인 것

원래 형식의 변천이란, 개개의 형식이 분리·단절된 것이 아니라 연속적인 한 방향으로의 흐름을 가지면서 변화하는데, 간두령에 있어서도 그런 자연스러운 이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므로 테두리부의 형태는 완만한 곡선을 띠는 것에서부터 옥개형으로, 또 다시 직선형의 것으로 변해가는데, 그것은 점차 단순하고 투박하게 되어감을 보여주고, 문양 및 정면도 정질에서 조절로 바뀌어간다. 간두령의 변천은 전반적으로 퇴화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 아닐까 한다. 그러므로 간두령은 외형상 'a→b→c→d'의 순서로 변화해 갔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간두령을 구성하는 각 부분이 얼마만큼 차지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각 부 비율을 살펴볼 때, 간두령의 전체길이와 너비, 크기에는 차이가 없고, 공부와 신부의 길이 비율은 2:8 또는 3:7 정도로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그러나 간두령은 소리를 내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니만큼 그와 관련된 부분에는 그런 특징이 반영되어 있고, 발음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생각되는 身部를 구성하는 鈴部와 共鳴部의 비율은 간두령의 잔존 개체 수에 비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전술했듯이 기면의 절개구는 격막이 있는 위치까지 형성되어 있고, 그 안에서 丸이 운동하여 소리를 내게 된다. 그러나, 현 상태에서 직접적인 실험이 행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구체적으로 그 차이를 밝힐 수는 없는 실정이지만, 身部 내 각 부분의 비율은 發音과 연관된다는 생각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鈴部와 공명부의 비율은 신부 전체를 100%로 잡고, 그 안에서의 구성비를 표시하여 나타내어 보았고, 그것이 표4이다. 이것은 아래의 4가지 유형으로 정리되고, 시간을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표4> 령부와 공명부의 비율로 본 간두령의 형식분류



- (ㄱ) 격막이 신부 상부에서 약 30% 지점에 위치
- (ㄴ) 격막이 신부 상부에서 약 50~60% 지점에 위치
- (ㄷ) 격막이 신부 상부에서 약 60~70% 지점에 위치
- (ㄹ) 격막이 신부 상부에서 약 80% 지점에 위치

여기서 대표적인 예를 제시하면, (ㄱ)은 전 논산의 것이 해당하고 鈴部가 身部の 30%를 차지한다. (ㄴ)은 鈴部 비율은 50%인 것으로 초포리가 대표적이다. (ㄷ)은 령부 비율이 70% 가량되는 입실리유적의 간두령이 대표적이다. (ㄹ)은 령부가 80%가량을 차지하는 신천동 출토의 간두령이 대입된다. 격막의 위치가 상부인지 하부인지 하는 것은 령부와 공명부의 체적과 관련된다. 격막이 상부에 있으면, 령부는 체적이 적고 공명부는 반대로 체적이 커지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격막이 상부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도록 위치하고, 령부의 체적도 자연스럽게 점차 늘어나고, 거기에 대응하여 공명부의 체적은 점차 줄어드는 방향으로 변화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신부에서 령부와 공명부의 체적은 소리를 발생시키는 것과 직결되는 요소로 소리의 크기 및 진폭, 소리의 지속성, 음색과 관련되어 그것들의 차이를 유발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 점은 아직 실험을 거치지 않은 가설단계에 불과하므로, 구체적 차이는 앞으로 해명될 것을 기대한다.

다음으로 삼한시대 銅鈴類의 조합상으로 분류를 해보았다. 간두령이 출토되지 않는 것, 간두령과 동령들 일부가 조합되는 것으로 나누어진다. 그 가운데 간두령을 수반하는 음구조합은 다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 모두 네 가지로 구분이 가능할 것이다.

- i. 간두령이 구비되지 않은 동령류의 조합
- ii. 간두령과 팔주령, 쌍두령, 조합식쌍두령의 4種鈴具가 set로 나타나는 것
- iii. 4種鈴具 조합에서 팔주령이 탈락하고, 기타 동령류가 첨가되기도 하는 것
- iv. 4種鈴具 조합이 완전히 와해되고, 간두령만 남은 것

동령류의 조합에는 대부분 간두령이 포함되는데, 간두령이 보이지 않고, 각각 1쌍의 팔주령과 쌍두령으로 구성되는 것을 i 형식으로 설정 두고, 간두령과 함께 팔주령, 쌍두령, 조합식쌍두령이 set로 나타나는 것은 ii로, 간두령은 출토되지 않으나, iii은 4種鈴具 중에서 팔주령과 쌍두령 2종이 공반하는 i 형식인 전남 화순 대곡리유적과, 4종령구 가운데 팔주령만 제외되고 나머지 쌍두령,

조합식쌍두령, 간두령을 비롯한 기타 鈴具가 공반되는 함평 초포리유적을 예 들 수 있다. iii는 4종의 鈴具 set의 조합이 붕괴되기 시작하면서 대신 이형령구 공반한다. 함평 초포리유적에서 팔주령이 일탈되면서 병부동령이 첨가된다. iv에서는 ii의 4종의 鈴具조합에서 팔주령, 쌍두령, 조합식쌍두령이 빠지게 되고, 간두령만 잔존하여, 4종 鈴具조합은 완전히 와해되었다. 경주 입실리유적에는 4종 령구조합 중 간두령만 보이고, iii에서 나타난 이형령이 첨가된 바 있다.

| 출토 및 발견지 | 팔주령 | 쌍두령 | 조합식 쌍두령 | 간두령 | 잠형령 | 이형령 | |
|----------|-----|-----|---------|----------|-----|-------------|-----|
| 전남화순대곡리 | 2 | 2 | | | | | i |
| 傳 충남 논산 | 2 | 2 | 1 | 2 | | | ii |
| 傳 충남 덕산 | 2 | 2 | 2 | 2 | | | |
| 傳 낙동강 | 2 | 2 | 1 | 2 | | | |
| 함평 초포리 | | 편 | 1 | 2 | | 병부동령 | iii |
| 경주월성입실리 | | | | 1 (?) | | 병부동령 銅劍鎗 | iv |
| 경주월성주동리 | | | | 2 | | | |
| 대구 신천동 | | | | 2 | | | |
| 傳 낙동강-1 | | | | 2 | | | |

<표5> 동령류의 조합관계

지금까지 간두령의 질과 테두리부의 형태, 신부 내에서의 령부와 공명부의 비율, 홑구와의 동반양상 등을 통하여 그 특징을 살펴보았다. 간두령은 정질에서 조질로, 테두리부의 형태는 단순·간략화되는 방향으로, 신부 내 비율은 령부가 공명부에 비해 체적이 작다가 점차 커지는 방향으로, 그리고 음구조합은 4종령구가 성립되지 않은 것에서 4종령구의 완성, 그러다가 4종령구가 와해되는 방향성을 가진다. 시기 판정을 위한 앞에서 분류한 제 속성들을 종합하고, 표식유물과의 공반관계를 파악하여, 간두령의 변화방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시기의 설정에 사용한 표식유물의 편년은 沈奉謹의 銅劍을 중심으로 한 編年案³⁷⁾과 이청규의 多鈕鏡의 編年案³⁸⁾, 그리고 立岩遺蹟의 銅矛와 銅戈의 編年

37) 沈奉謹·朴恩貞, 『韓國 青銅劍 系譜와 그 同伴遺物』, 『韓國上古史學報』 10, 韓國上古史學會, 1992.

38) 李清圭, 『東北亞地域의 多鈕鏡과 그 副葬墓에 대하여』, 『韓國考古學報』 40, 韓國考古學

案³⁹⁾을 참고로 相對年代를 검증하고 실연대를 제시하고자 한다.

가장 기준이 되는 속성은 身部 내 鈴部와 共鳴部의 비율이다. (ㄱ)에 속하는 것은 주로 외형상 a, 음구조합상 ii에 대응한다. (ㄴ)도 (ㄱ)과 같은 양상이며 함평 초포리유적은 예외적이고, 외형상 b와 음구조합에서 iii으로 분류되는데 b는 테두리부의 형태가 a와 같고, 음구조합 iii는 팔주령의 탈락과 다른 동령류의 삽입 외에는 ii과 같으므로, 초포리의 신부 내 비율은 (ㄴ)에 속하는 다른 유적과 유사성이 인지된다. (ㄷ)은 b형에 음구조합 iv에 대응되는 것이 기본이고, 경주 월성 죽동리는 외형이 c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여기에 포함되는 것 중 시기가 떨어지는 것이다. (ㄹ)은 d형에 음구조합 iv을 하고 있다.



會, 1999.

다뉴경을 기본적으로 제사장의 의기이자, 정치적 권위의 상징물로 이것을 부장한 피장자를 한 집단의 우두머리로 보았는데, 다뉴경 부장묘와 다뉴경이 없는 묘를 비교분석하여, 그런 결론을 도출함과 동시에 다뉴경부장묘 내에서도 3등급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보았다.

다뉴경의 분류는 주연부와 배면의 문양의 형태와 구성을 중심으로 A식 粗文鏡, B식 粗細文鏡, C식 細文鏡으로 나누고, 각 형식 내에서 주로 채택되는 문양을 관찰한 후, 청동검의 편년으로 상대편년을 검토하면서 실연대를 부여하였다. A식은 비파형동검단계로 BC800~BC400, B식은 세형동검초기와 전기단계로 BC400~BC200, C식은 세형동검의 중기와 후기에 해당하고 실연대는 BC200~BC50년으로 추정하였다.

39) 岡崎敬, 『青銅器とその鑄型』, 『立岩遺蹟』, 河出書房新社, 1977, pp.191~206.

동모의 시간적 속성을 크기에 두고, 細形銅矛(全長16~22.5cm), 中細銅矛A類(全長28.3~46.5cm), 中細銅矛B類(全長50.3~68.8cm), 中廣銅矛(全長71.0~83.1cm), 廣形銅矛(全長83.1~89.4cm)로 나누었다.

동모의 전체길이에 따른 분류는 대체로 일치하는데, 형식과 형식 사이에 틈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나라에서 출토되는 동모의 크기와 함께 외형을 관찰하여, 적절하게 편입시키도록 하겠다.

대구 신천동 출토의 동모는 48.2cm와 42.2cm의 것이 출토되었으므로, 中細銅矛B類에 가까운 것으로 상대연대상 입실리보다 시기가 떨어진다.



<圖10> 간두령의 변천과정 (左 →右)

동검, 동모, 동과의 편년으로 검토해보면, (ㄱ)은 간두령의 최초형식보다 이른 것으로 추정되는 화순 대곡리유적에는 한국식동검 I 기의 동검과 한국식동검 II 기의 동검이 공반한다. 그러므로 BC200~BC100으로 연대를 잡을 수 있고, 고식 동검과 동반하므로 그 중에서도 이른 시기의 유적으로 판단된다. 鈴具의 조합은 b이면서 비율은 (ㄱ)형식에 속하는 함평 초포리유적에서는 동검, 동모, 동과, 다뉴경 등으로 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데, 동검은 한국식동검 I 식과 한국식동검 II 식이 병존하고 있다. 동모는 길이가 27.9cm와 26.1cm인 중세형동모A 류가 출토되었다. 동모는 중세형동모A 류⁴⁰⁾ 가운데에서는 가장 길이가 짧고, 형태에서 關部가 각이 진 긴 마름모상의 身을 가진다는 점, 공부하단에 段이 지고, 고정孔으로 추정되는 구멍이 있다는 점, 耳部의 부채 등은 세형동모와 가깝다. 銅戈는 세형동과로 무문에 봉부가 뾰족하다. 다뉴경은 동심원을 기본으로 여러 구획이 나누어진 정문경이 출토되었다. 이로 볼 때, 함평 초포리유적은 한국식동검 II 기에 해당하고, 동모나 동과의 형태로 미루어보아, 대곡리보다는 시기가 떨어진다. 더욱이 拵具에서도 柄部銅鈴이 추가되는 것이 앞에 비교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이로 미루어 보건데, 팔주령, 쌍두령, 조합식쌍두령, 간두령의 조합관계를 가지는 것들은 대략 화순 대곡리유적과 함평 초포리유적 같은 한국식동검 II 기이고, 세분하면 그들 사이에서도 대곡리유적이 선행하고 초포리유적이 후행하는데, 그 가운데 4종령구 조합유물군 ii가 위치하고, 초포리유적은 그 중에서도 과도기적인 요소를 내포한다고 볼 수 있다.

신부 내 각부 비율 (ㄷ)은 앞 시기 4종 鈴具의 set관계가 완전히 소멸된 모습을 보인다. 경주 입실리유적에는 한국식동검 I ~ III 식의 것과 더불어 중세형동모A와 유문동모, 유문동과가 나타나서 한국식동검 III 기 후기의 양상을 보인다.

40) 중세형동모A의 길이범위는 전체길이 28.3cm~46.5cm이다.

岡崎敬, 『青銅器とその鑄型』, 『立岩遺蹟』, 河出書房新社, 1977, pp.191~206.

다. 중세형동모는 전체길이는 39.5cm로 A형이고, 전체길이가 31.7cm인 역시 중세형동모A형에 속하는 동모는 장식성이 강하고 身部가 긴 有文銅矛이다. 동과는 대략적인 형태는 전술한 초포리유적 출토의 것과 비슷하지만, 혈구 내 문양이 있는 것으로 역시 장식성이 가미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경주 월성 죽동리유적은 간두령 형태가 c라는 점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공반한 한국식동검은 봉부가 길고, 능각이 기부까지 이르는 한국식동검IV기의 것에 가까운 동검이고, 더불어 有文銅矛와 有文銅戈와 반출되므로 연대는 AD1에 가까운 시기로 잡을 수 있다. 그러나 동모나 동과가 한국식동검IV기에 나타나는 廣形의 것이 아니므로 한국식동검IV기보다는 이른 시기로 짐작되고, 실연대는 BC100~AD1 중 늦은 시기로 추정된다.

대구 신천동 출토 간두령은 (ㄷ)의 비율과 d에 해당하는 형으로, 음구조합 iii에 속하는 것 가운데에서도 구분되는 형식을 하고 있다. 동반유물로는 전체길이 42.8cm와 49cm에 이르는 중세형동모A형이 있는데, 이 동모는 중세형동모A형 가운데 전체길이가 가장 긴 것이며, 이와 함께 유문동과가 반출되었으므로, 경주 죽동리유적과 비슷한 시기 또는 조금 늦은 시기로 추정된다.

| 출토 및 발견지 | 신부 비율 | 외형 | 품具 | 韓國式銅劍 | 銅矛 및 銅戈 | 실연대 |
|----------|-------|------|--------------------|-------|----------------|---------------------|
| 傳 충남 논산 | (ㄱ) | a | ii | · | · | BC200 ~ BC100 |
| 傳 충남 덕산 | (ㄴ) | | | · | · | |
| 傳 낙동강 | | | | · | · | |
| 함평 초포리 | | b | iii | II | 중세형동모A 무문동과 | BC100 ~ AD1 |
| 함주 조양리 | (ㄷ) | | | | · | |
| 傳 낙동강-1 | | | | | 세형동모 ? | |
| 경주월성입실리 | | | | c | iv | |
| 경주월성죽동리 | | IV ? | 중세형동모A(유문) 유문동과 | | | |
| 대구 신천동 | (ㄹ) | d | | | 중세형동모B 유문동과 | |

<표6> 銅鈴類 諸型式들의 組合關係

(2) 팔주령 · 쌍두령 · 조합식쌍두령

팔주령이 발견된 곳은 화순 대곡리, 傳 논산, 傳 덕산, 傳 낙동강으로 4례에 불과하다. II장에서 정리했듯이 鈴部가 球形인 것과 鈴部 한 면이 납작한 것으로 구분된다. 鈴部가 球形인 것은 절개공이 鈴部에 세로로 4개가 등간격으로 길

게 있으면서, 그 사이에 간단한 기하학적 문양대가 들어가는 것으로, 전 덕산 출토품, 전 논산 출토품이 있다. 한쪽 면이 둥글고 다른 면이 납작한 鈴部를 가진 팔주령은 납작한 쪽이 팔두령 신부의 鈕가 있는 면과 같은 면이고, 鈴部의 그 면에는 절개구 2개가 배치되어 있다. 반대면의 볼록한 부분에는 소용돌이문이 각각 한 쌍씩 시문되어 있다. 전 낙동강 출토품과 화순 대곡리 출토품이 해당된다. 이런 차이점이 존재하나, 그들 사이에서 특별한 시간적 흐름이나 방향성은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앞에서 살펴본 공반관계상 한국식동검Ⅱ기의 이른 시기에 편년된다.



<표7> 銅鈴類의 供伴關係로 본 編年

쌍두령은 화순 대곡리유적 출토의 것을 보면, 간두령이 등장하기 이전에 팔주령과 함께 나타나서, 팔주령이 소멸된 이후에도 조합식쌍두령, 간두령과 함께 잔존하는 것이 초포리유적에서 보이고, 한국식동검Ⅱ기말~한국식동검Ⅲ기 초이고, 한국식동검Ⅱ기말에서 Ⅲ기로 넘어가는 시기에 간두령만 남기고, 쌍두령마저 조합식쌍두령과 함께 소멸하게 된다.

조합식쌍두령은 4종령구 가운데 가장 늦게 출현하는 것으로, 이것이 남아있으므로 4종령구조합이 완성되어, 그 조합이 완전히 와해되기 전까지 남아 있게 된 것이다.

이들 세트는 한국식동검Ⅱ기의 것으로 BC200~BC100이고, 그 중 이른 시기이다. 팔주령과 쌍두령이 동령세트 가운데 가장 먼저 등장하고, 점차 조합식쌍두령과 간두령이 첨가되는데, 소멸되는 것은 팔주령 - 쌍두령 · 조합식쌍두령 - 간두령의 순으로, 간두령이 동령류 가운데서는 가장 늦게까지 존속한다.

(3) 잠형령 및 기타 동령류

잠형령은 지금까지 5점이 발견되었다. 평양 정백동 출토품으로 토취장 출토와 세트로 추정되는 것과 경주 구정리 출토품, 전 공주 출토품, 이양선 박사 수집품, 小倉 수집품이 그것인데, 이 중 출토지와 공반유물이 확실한 것은 평양 정백동 출토품과 경주 구정리 출토품의 공반관계를 보면, 정백동에서는 차마구, 구정동에서는 철제 공구류와 유문동과와 동모편 등이 공반하였다. 구정동의 동모편은 기부와 공부의 형태상 대구 신천동 유적 출토의 것과 유사한 중세형 동모A식이나 중세형동모B식으로 추정되는 것이 출토되므로, 경주 구정동유적의 시기는 한국식동검Ⅲ기말에서 IV기에 이르고, 거기서 출토된 잠형령의 시기도 그렇게 유추된다.

그 외 병부동령은 함평 초포리유적과 경주 입실리유적에서 보이고, 묘형령은 입실리유적에서 병부동령과 같이 출토된다. 병부동령은 보이는데, 팔주령 · 쌍두령 · 조합식쌍두령 · 간두령의 조합이 해체되기 시작하는 시기인 한국식동검Ⅱ기 후반에 출현하기 시작하여, 묘형령과 함께 한국식동검Ⅲ기에 4종령구조합의 해체과정을 함께 한다. 그러므로 묘형령이 시기가 약간 떨어지나, 한국식동검Ⅱ기 말에서 Ⅲ기초로 편년되어 BC100 전후로 볼 수 있다.

종합하면, 鈴은 팔주령과 쌍주령의 조합이 한국식동검Ⅱ기초에 가장 먼저 나타나서, 조합식쌍두령과 간두령이 첨가되어 그 4종이 set로 나타난다. 그러다가, 가장 먼저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 팔주령이 일찍 모습을 감추고, 그 세트에서 간두령만 잔존하게 되는데, 대신에 柄部銅鈴이나 鐺形鈴과 같이 다른 것에 부착

되어 소리를 낼 수 있는 鈴이 추가된다. 이것은 령 자체로 의미를 가지던 동령류에서 그것이 소멸되면서, 다른 기물에 부수되어 장식성이나 음향적 효과를 더하는 기능을 가진 보조적 역할로의 동령류가 한국식동검Ⅱ기 후반에 대두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銅鐸類

(1) 대동탁의 사용시기와 변천

동탁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크기에 따라 大銅鐸과 小銅鐸으로 크게 나누어지는데, 대동탁은 鈕의 附着方式이 모두 外緣附鈕로 동일하지만, 鐸身上端에서 下端에 이르는 側線의 각도에는 차이가 보이고, 型持孔의 위치가 상위부, 중위부, 하위부로 차이가 있다. 먼저 형지공의 위치를 백분율로 나타내었을 때, 다음의 A식, B식, C식의 3종류로 분류된다.

A식: 형지공이 탁신의 상부 20%~30%되는 지점에 위치

B식: 형지공이 탁신의 상부 30%~50% 지점에 위치

C식: 형지공이 탁신의 상부 50%~80%지점에 위치

먼저 A식은 형지공이 탁신의 상부 20%~30%되는 지점에 위치한 것으로, 大田 槐亭洞遺蹟에서 출토된 대동탁이 대표적인 예이다. 괴정동유적의 대동탁의 공반유물로는 한국식동검Ⅰ기에 해당하는 동검이 있어, BC300~BC200의 시기에 해당되고, 마제석촉과 다뉴조세문경으로 가장 선행하는 시기의 것으로 BC300년으로 편년할 수 있고, 현존하는 대동탁 가운데 가장 古式이다.

B식은 형지공이 30%~50% 지점에 위치한 것으로 부조예군묘 출토 동탁이 이 형식에 속한다. 부조예군묘 출토 동탁을 예로 들어 살펴보면, 형지공은 상부로부터 약 45%되는 곳에 있다. 공반하는 한국식동검은 한국식동검편년Ⅲ기에 해당하고, 출토된 인장으로 前漢 宣帝 元年(BC74)을 상한으로 볼 수 있고, 늦어도 後漢 光武帝 建武6年(BC30)을 연대로 삼을 수 있다.⁴¹⁾ 같은 시기로 편년되는 평양 정백동37호에는 「地節四年二月」이라는 기년명이 나타나므로, BC66년이라는 실연대가 도출된다. 그러므로 B식은 BC100~AD1에 이르는 시기로 볼 수 있다. 경주 입실리유적에서 출토된 동탁도 B식에 포함되는데, 한국식동검3식과 中細形A類銅矛⁴²⁾가 공반한다. 다른 한 점의 동모는 공부가 주름살모양으

41) 岡崎敬, 『‘夫租歲君’ 銀印をめぐる諸問題』, 『朝鮮學報』 46, 朝鮮學會, 1968.

42) 동모 두 점 가운데 한 점은 전체길이가 40.9cm에 이른다.關部까지 刃이 형성되어 있고, 鏃

로 접히면서 身과 공부가 만나는 부분에 삼각형상의 뾰족한 돌기가 형성되어 있는 有文銅矛이다. 공반된 동과는 중세형의 봉부폭이 다소 넓고, 血溝 하단에 기하학문이 시문된 유문동과이다. 이로 미루어 보아, 입실리유적 역시 한국식동검Ⅲ기의 후반부로 추정되고, 입실리 출토 B식의 동탁도 한국식동검Ⅲ기인 BC100~AD1로 편년되고, 그 가운데에서 후반으로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C식에는 대구 평리동 출토의 것이 있다. 그것은 형지공이 탁신 상단에서부터 상부 50% 가량에 위치하고 있다. 이와 함께, 봉부가 길고, 능각이 기부하단까지 세워진 한국식동검Ⅳ에 해당하는 동검과, 전체길이가 20cm 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援部형태가 中廣形銅戈에 속하는 동과가 공반되었다. 이 동과는 형태가 대구 비산동유적 출토품과 유사한 것이며, 비산동유적에서는 혈구에 문양이 있는 광형동과와 공반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시기는 한국식동검 편년상 가장 늦은 시기인 한국식동검Ⅳ기로 실연대는 AD1~AD100으로 짐작할 수 있다.

| 형지공의 위치 | 한국식동검형식 | 공반유물 | 실연대 | 대표유적 |
|-----------|---------|-----------|-------------|--------------------|
| A(20~30%) | I | 多鈕細粗文鏡 | BC300~BC200 | 대전 괴정동 |
| B(30~50%) | Ⅲ | 中細形A類銅矛 | BC100~AD0 | 평양 부조예군묘 경주 입실리 |
| C(50~80%) | Ⅳ | 소형의 中廣形銅戈 | AD1~AD100 | 대구 평리동 |

<표8> 大銅鐸의 型式과 供伴關係로 본 實年代

따라서 대동탁은 A식 → B식 → C식으로 변천하며, 시기는 A식은 한국식동검 I 기에 해당되어 BC300~BC200, B식은 한국식동검Ⅲ기로 BC100~AD1에, C식은 한국식동검Ⅳ기인 AD1~AD100으로 시기를 설정할 수 있다. 이 중에서 B식에 해당하는 유적에는 기년명⁴³⁾이 명기된 낙랑의 분묘가 포함되어, 실연대를 검증해준다. 또한 주조된 상태는 후기로 갈수록 합범흔이 조정되지 않는 등 거칠어지는 것이 인지된다. 형지공의 위치상 A식과 B식은 서로 확연하게 구분되는 경향이 있으나, B식과 C식은 뚜렷하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경향이 보이는데,

部 끝에 帶나 돌기가 장식되어 있다.

43) 夫租歲君墓는 銀印이라는 표식유물로 상한을 前漢 宣帝 元年5年(BC74)으로 하고, 늦어도 後漢 光武帝 建武6年(BC40) 밑으로 내려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岡崎敬, 『夫租歲君 銀印をめぐる諸問題』, 『朝鮮學報』 46, 朝鮮學會, 1968

그리고 정백동37호묘는 地節四年(BC66)의 연대를, 정백동2호묘는 永始三年(BC14)으로, 중국에서 낙랑군으로 전래된 시간을 고려하더라도 BC1c 후반으로 볼 수 있다. 高久健二, 『樂浪古墳文化 研究』, 學研文化社, pp.77~78.

시기적 연속성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한국식동검Ⅱ기에 해당하는 자료가 전무한데, 그것을 균형 있는 발굴이 행해지지 않은 까닭으로 야기된 현상이 아닐까 한다.

(2) 소동탁의 사용시기

소동탁은 문양이 있는 것과 없는 것 그리고 外緣附鈕와 中間鈕로 나뉜다. 대부분 대동탁 B와 C형에 공반되어 한국식동검Ⅲ기에 또는 Ⅳ기에 나타난다. 이 시기는 평양지역에 낙랑군이 설치된 시기라는 점에 착안하여, 중국 漢代 분묘의 사례를 관찰한 결과 이와 동일한 것이 중국 前漢代 분묘에서 출토된 예가 있으므로, 낙랑시기에 유입된 중국적 요소라고 생각된다.



<표9> 大銅鐸의 編年과 供伴關係

소동탁은 문양의 유무 차가 있으나, 특별히 소동탁 내에서 시기차이를 감지할 만한 속성은 보이지 않는다. 시기는 경주 입실리유적에서 간두령, 동탁, 한국식동검3식, 중세형동모A식, 유문동모, 유문동과 등이 출토되어 공반된 소동탁의 시기는 한국식동검Ⅲ기에 해당하여, 실연대를 BC100정도로 잡을 수 있고, 대동강면 9호묘(석암리9호묘)나 석암리219호묘⁴⁴⁾의 전실묘와 전돌에 찍힌 기년명 등으로, AD1c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남부지역인 창원 다호리유적에서 출토된 소동탁도 칠초동검이나 중세형동모, 철기류 등으로 보아, 한국식동검Ⅳ기가 중심이 되는 AD100에도 존재하였으며, 뒤이은 삼국시대에 이르기까지 연속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2. 동령·동탁의 지역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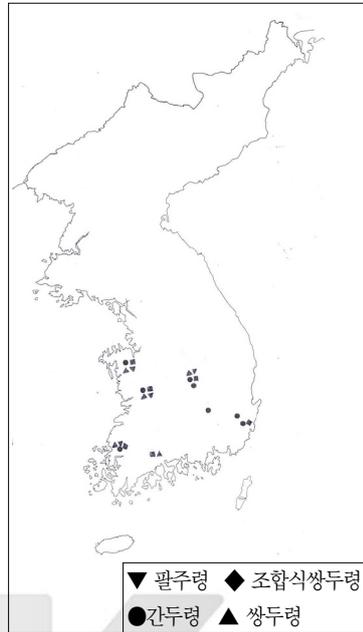
전체적인 분포상 동령류는 충청도와 전라남도 일부지역에서 보이고, 동탁류는 평양지역과 충청도, 경상도 지역으로 크게 평양지역과 우리나라 남부지역에 보여 서로 중심되는 지역이 구분되는 모습을 보인다. Ⅲ기에 간두령이 동령류에서 단독으로 나오는 경우는 낙동강유역에 분포하면서 동탁류를 공반하지만 이들은 현 상황에서 지역별로 구별되는 양상이 보이거나 공식성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단정내리기는 어렵다.

가. 동령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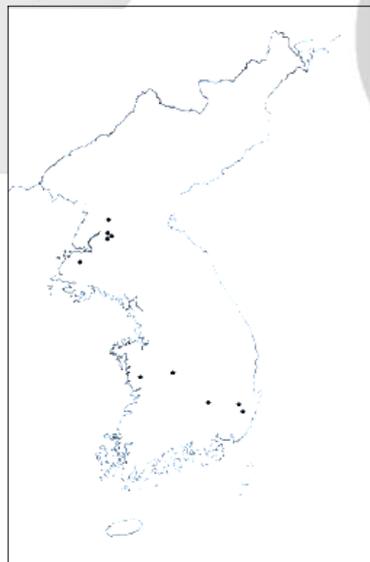
시기적으로 동령은 한국식동검Ⅱ와 Ⅲ기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그 중 Ⅱ기에는 4종 조합을 기초로 하는 동령류가 보이고, 화순 대곡리와 함평 초포리가 자리하고 있는 영산강유역과 논산지역의 금강유역에 동령류가 분포한다. 그리고 Ⅲ기에는 간두령을 주축으로 하는 것이 낙동강유역과 경주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 위치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순수한 지역차라고 보기보다, 시기에 따른 분포지의 차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으므로, 당장 지역성을 논하기는 곤란하다.

더욱이 이 시기에 해당하는 유적과 동령류가 출토되는 유적을 서로 비교해 보더라도 동령을 제외하고, 그 외의 유물을 중심으로 하는 유적은 거의 없고, 대부분이 동검을 위시한 동령이 함께 움직이는 흐름을 보인다. 그러므로 동반된 동검도 실용구로 현 시점에서 실용구로 여겨지나, 동령이 儀器의 역할을 한다는

44) 석암리 219호는 낙랑전실묘Ⅱ기에 속하는데, AD45, AD52, AD69의 기년명이 있는 석암리 205호와 같은 시기로 편년되므로, 소동탁 편년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圖11> 동령류의 분포



<圖12> 동탁류의 분포

가정 아래에서 함께 의기적 성격을 가진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또 이런 현상이 그 시기에 해당하는 유적의 미발견에 따른 결과인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어 현 단계에서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고, 일단 현재 표면적으로 보이는 현상을 파악하는데 의의를 두면서, 앞으로의 자료 증가를 기대한다.

나. 동탁류

기존의 동탁류의 분포를 나타낸 결과에서 초기에는 충청도 지방에 일부 보이다가, 시간이 경과할수록 한반도 서북부지방, 즉 과거 낙랑의 중심지로 보이는 평양을 중심으로 한 권역과 충청도와 경주를 중심으로 하는 경상도로 이루어진 우리나라 남부지역 권역으로 나뉘어져서 보인다. 이 분포와 관계해서 동탁 자체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보고자 한다. 그리고 소동탁은 한국식동검Ⅲ기부터 나타나고, 대동탁이 한국식동검Ⅰ기에 충청동지역에서 나타난 것과 달리, 평양지역과 경상도지역에서만 보인다.

동탁류는 기본적으로 횡단면 사다리꼴을 한다. 이는 동탁 상단장축과 하단장축의 길이 차이에 기인하고, 여기에 탁신높이까지 가미하면 경사도가 결정된다. 이렇게 형성된 탁신부의 경사도는 지역성을 반영하는 중요한 속성으로 생각된다.

다.

각 부분 수치를 알 수 있는 대동탁들을 대상으로 경사도를 나타낸 것이다. 이 표에서 x축은 각 동탁의 상·하단장경이 차를, y축은 탁신의 높이를 가리킨다.

대동탁은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뉘는데, 묶음 A는 약 83°의 각도 주변에서



그 이상의 각도를 가지고, 산포되는 것이고, 묶음 B는 79°에서 83° 사이에 위치하는 것으로, 전자는 대전 괴정동유적을 비롯한 한국식동검 I 기의 충청도지역에서부터 한국식동검 III·IV기에 나타나는 부산·경남지역의 우리나라 남부지역의 동탁들이 밀집해있다. 후자는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의 것이 표시된다.

다음은 대동탁의 실측도로 측선 각도의 차이를 보여주기 위한 표이다.

<표 10> 한반도 남부지역의 대동탁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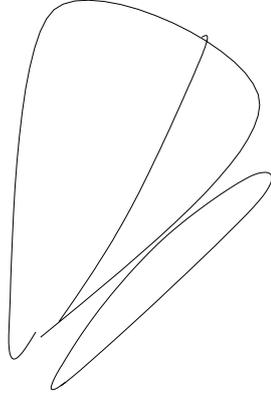
평양지역의 대동탁 비교

(① 괴정동, ② 평리동, ③ 상리 출토 대동탁)

대동탁에서 지역에 따른 이런 차이가 나는 원인에 관해서는

낙랑이 설치되면서 나타나는 漢의 요소의 침투라고 생각한다. 그 가운데 소동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漢의 분묘에서 출토되곤 하는데, 그것의 측선 경사각은 비교적 작아 완만하게 올라가는 것들이 있고, 평양지역에서 보이는 대동탁과 비교하였을 때, 대동탁의 측선각도보다 작은 것이 있다. 이렇게 완만한 각도는 漢나라 鐸이 가지는 특징의 하나로 생각할 수 있다. 그렇다면 기존의 우리나라 남부에서는 재지적 성격의 대동탁이 있었고, 그것이 한국동검기에 계속 사용되어 왔는데 평양지역에서는 漢四郡의 하나인 樂浪⁴⁵⁾이 설치되면서 측선 경사각이 다소 완만한 중국의 소동탁이 나타나고, 대동탁도 그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즉 평양지역에서 보이는 동탁은 형태는 비록 남부지역의 것을 기본으로 삼고 있으나, 경사도를 보았을 때, 남부지역의 것보다 완만한 편이고, 낙랑의 특색인 소동탁의 경사도보다는 급한 편이므로, 낙랑적 요소와 재지적 요소가 혼합되어 창출된 형식이라고 할 수도 있다.

45) 한병삼, 『월성 죽동리출토 청동기 일괄유물』, 『三佛金元龍教授停年退任紀念論叢』 1, 一志社, 1987.



<표11> 탁신 측선의 경사각으로 본 지역성

■ 남부지역 ● 평양지역

V. 역할과 의미

1. 동령류

鈴은 중공 안에 丸이 들어가, 丸이 폐쇄된 공간 내에서 鈴器壁에 부딪혀서 소리를 발생하므로, 單音を 내고, 일정한 박자감을 표현하기 곤란하여 소리가 불규칙하다. 더욱이 銅鈴類 가운데에서는 鈴部가 여러 개 모여서 구성된 것과 하나의 鈴部로 이루어진 것이 있는데, 후자의 경우는 복수의 개체가 세트가 되어 조합되어 소리의 지속성이 낮은 鈴의 특성을 보완해주는 동시에, 공명을 일으킨다. 共鳴은 고유진동수와 외부에 존재하는 진동수가 같을 때 심해지고 진폭도 커지는데, 이 진동체가 연결된 경우는 서로 간의 에너지 교환이 쉽기 때문에 그 효과가 커진다. 팔주령이나 쌍두령, 조합식쌍두령과 같은 경우는 동일재료를 가지고 같은 크기를 한 鈴部가 복수로 존재하고 그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공명의 발생요건은 충족된다. 더욱이 이들은 손에 바로 잡는 것이 아니므로,

감쇠진동을 낮추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쌍두령이나 조합식쌍두령, 간두령은 鈴部와 접하는 곳이 중공형으로 공명부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역시 손으로 바로 잡지 않고, 나무막대와 같은 것을 꽂아 사용했을 것으로 보이므로, 진동에 대한 저항을 최소화하는 효과를 가져, 더욱 크고 시끄러우며 혼란스러운 소리를 발생시킨다. 그것은 정신을 쉽게 다른 상태로 전환시켜 정상적인 심리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다.⁴⁶⁾ 이런 과정은 소리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도 해당하고, 소리를 듣는 사람에게도 같은 현상을 일으킨다.

鈴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정도의 용도를 가진다. 첫째, 긴급하고 시끄러운 소리로 여러 사람들에게 위급한 일을 알리는데 사용되고, 둘째, 말의 목이나 앞꾸미개, 뒤꾸미개와 같은 곳에 매달려 말이 움직일 때마다 소리를 내는데 사용된다. 셋째 시끄러운 소리를 내어 맹수를 쫓기, 또는 악귀와 악령을 쫓는데 이용된다. 넷째로는, 샤먼이 신을 부르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먼저 첫 번째의 경우는 鈴이 긴급한 소리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는 적합하지만, 鈴은 진동수가 적고 진폭이 작아, 멀리까지 소리를 전달하지는 못하고, 다만 가까이에서 급하게 위급함을 알리거나, 주위를 끝 때 사용될 수 있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동령은 여러 형태의 동령이 세트로나 나타나고, 출토 위치가 특별히 주변을 잘 살필 수 있는 곳이라든지, 취락의 중심 등과 같은 곳이 아니라, 분묘, 그리고 제사유구⁴⁷⁾의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 출토되므로, 告知의 기능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馬鈴은 말의 목이나 꾸미개에 매달려서 말이 움직일 때마다 울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삼국시대 고분에서 출토되고, 신라의 기마인물형 토우에도 말에 방울이 달린 모습을 찾을 수 있듯이, 삼국시대에는 성장한 말에 음향을 가

46) Walsh, Riger, N., 『The Sprit of Shamanism』, Los Angeles, 1990, pp.174~175

童 恩生(川崎 保 譯), 『中國古代の巫,巫術,巫術崇拜と聯關する問題』, 『博古研究』 15, 博古研究會, 1998, p.16

북소리의 효용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먼저 템포가 고정되어 있는 북소리는 巫士가 쉽게 자신의 정신을 집중시키고, 그 외의 주의력을 분산하는 자극을 나타내게 한다. 모든 신령의 교훈과 말에 대해 정신의 고도한 집중은 가장 효과적인 것이다. 그리고 특정 템포의 북소리는 맥박에 영향을 주므로 신경활동을 변화시킨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맥박과 관련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성이 아직 의문시 되고 있으나, 연주, 음악, 춤 등은 인간의 생리를 자극하므로, 감정의 이입이 용이하다고 할 수 있다.

47) 출토상황이 명확하지 않고 전하는 4종령구의 예에서 볼 때, 다른 공반유물이 알려지지 않고 이들만 단독으로 나타나는 점에서 제사와 관련된 매납유구로 생각할 수도 있다. 일본의 경우는 산이나 언덕 정상부나, 인적과 떨어진 곳에 단독으로 묘광을 파고 제사유구로 추정되는 대형동모나 대형동탁을 매납한 예가 많은 점과 관련해 보면, 우리나라에도 분묘 내부장되기 이전에 매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미하여, 위엄을 드러내는데 사용하였다.⁴⁸⁾ 이 시기에는 이미 말이 기승용으로 이용되었고, 방울 역시 마구와 동반하여 출토된다. 그러나 본고에서 다루는 동령류는 형태상으로도 공부나 병부가 존재하여 막대나 손잡이가 장착되는 것이고, 기승구가 없는 상태에서 사행성 철기와 같은 것에 꽂혔을 것이라는 추정도 하기 어렵다. 鈕가 있어 매달 수 있는 것도 있다. 하지만 그 역시 단독으로 출토되는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공반유물로도 차마구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으로 최소한 이 단계에서는 동령류가 馬鈴으로 기능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소리를 통해 짐승을 몰아내는 기능이다. 인간은 다른 여러 짐승들에 비해 어떤 측면에서든지 신체적으로 탁월하지 않아, 맹수의 위협시 대적하거나 달아나는 것이 불리하므로 인간들은 불이나 큰 소리를 이용하여 위압감을 조성하는 등의 행동도 하였다. 이렇게 짐승을 쫓아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소리는 악령도 물리치는 것에도 적용되기도 한다고, 그것은 소음주술(magic of noise)이라고 불린다.

네 번째는 샤먼이 신을 부르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로의 기능성이다. 이와 관련된 용도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신발적으로 사례가 발견된다. 그 기능과 사용방식을 유추하기 이전에 먼저 종교적 지도자의 존재를 의미하는 샤먼이라는 용어가 갖는 의미와 개념, 그리고 그 성격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Shaman이란 용어상으로 보면 산스크리트어의 Samana(沙門), 페르시아어의 Shemen(偶像)에서 유래하였다고 하는데, 샤먼에 대한 가장 유력한 설은 만주어나 통구스어의 Samân에 기원을 두는 것이다.⁴⁹⁾ 만주어에서 Sam은 ‘홍분·불안한 상태’를 나타내므로⁵⁰⁾ 샤먼이라는 종교적 직능자는 接神하여 忘我된 상태에서 흥분하여서 쉬지 않고 춤추는 狂的인 성격을 가지는 존재로 해석된다. 그런

48) 일본에서도 고분시대의 고분에서 각종 마령이 출토되고, 형상하니와에 그 모습이 관찰된다.

49) 샤먼은 脫魂型和 憑依型の 두 가지로 구분된다. 탈혼형은 병·재액의 원인이 영혼의 상실에 있고, 신체를 떠난 영혼이 타계의 정령에 잡혀있기 때문에 샤먼은 의례 도중에 스스로 타계로 넘어가 영혼을 잡아 돌아온다. 병의형은 샤먼 스스로 수호령을 憑依시켜 수호령 자신이 되어 병이나 재액의 원인인 악령을 쫓아내는 것이다.(萩原秀三, 『稻と鳥と太陽の道』, 大修館書店, 1996.)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신이 내린다’라는 말을 쓰이듯이 신이 인간의 몸에 강림하는 병의형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巫가 신의 뜻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忘我상태가 되고 그 후, 신이 巫의 몸 안으로 들어와서 巫가 신의 뜻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탈아나 병의가 되는 과정은 기본적으로 망이를 전제로 하고, 샤먼이 신과 접촉한다는 점에서는 공통된다고 생각된다. 탈아된 상태에서의 巫의 신체는 영혼이 없으므로 거의 수면상태와 같은 모습을 보인다.

50) 최상수, 『韓國 民俗文化의 研究』, 成文閣, 1988, p.132

모습은 마치 외견상 간질병 환자나 히스테리 환자와 비슷하다고 설명된다.⁵¹⁾ 이렇게 망아하고 접신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도와주는 보조수단이 필요한데 북이나 방울소리 또는 쇠붙이들끼리 서로 부딪혀서 발생하는 소리⁵²⁾ 등이 그에 이용된다. 아니면 최면을 걸어 수면에 들게 한다든지, 연기나 담배, 마취제 등⁵³⁾ 과 같이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거나 혼수상태에 빠뜨리게 하는 예도 있다.⁵⁴⁾

소리가 샤먼의 접신에 도움이 된다는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부르야트인의 샤먼 의례⁵⁵⁾에서 샤먼이 영신들이나 동물영신과 소통할 때는 무고와 假聲을

51) 간질(epilepsy)는 비정상적인 정신 결합과 건망증, 그리고 협소한 시야를 가진다. 게다가 간질은 공격을 컨트롤할 지각이 없다. 그러나 샤먼은 현저하게 빠르고 정확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경우에도 그들 clan 구성원들보다 더 뛰어난 정신적 능력으로 접신한다. 또한 샤먼은 자신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위험하지만 자신이 가진 능력과 힘보다 더 무리하게 행동하기도 한다.

F. Georg Heyne, 『The Social Significance of the Shaman among the Chinese Reindeer-Evaenki』, 『Asian Folklore Studies』 vol.58 no.2, 1999.

52) 미르치아 엘리아데, 이윤기 옮김, 『샤머니즘』, 까치, 2003(재판발행일), p.46.

만주 순록 통구스족의 샤먼은 구경꾼들이 둘러선 아주 비좁은 유르트 안에서 접시모양의 쇠붙이가 30파운드나 주렁주렁 매달린 의상을 입고 강신무를 춘다.

53) 미르치아 엘리아데, 이윤기 옮김, 『샤머니즘』, 까치, 2003(재판발행일), p.42, p.96, pp.133~136, pp.209~212.

극북지방의 망아를 통해 샤먼의 영혼은 그 육체를 떠나 천상계나 지하계로 간 듯한 연상을 불러 일으킨다. 그러나 준극북지방의 경우 샤먼은 진정한 망아경지에 잘 들지못해 마취제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남아메리카에서는 샤먼이 되기 위해서는 며칠동안 음식은 입에 대지도 않고 마취성 음료, 특히 담배즙만 마신다. 그러면 영신이 샤먼 후보자에게 나타나고 한다. 즉, 샤먼의 후보자가 망아하여 의식을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이 세계에서 의 죽음이고, 그것이 신과의 접촉을 일으킨다.

네덜란드령 기아나의 카리브 샤먼의 입문의례를 살펴보면 입문자는 영신을 볼 수 있어야 하고, 이 영신들과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관계를 이룰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기간동안 금식을 하고 동시에 끊임없이 담배를 피우고, 담배잎을 씹으며 담배즙을 마신다. 밤새도록 춘 춤으로 인한 피로와 금식으로 인한 허기와 끊임없이 먹고 피우고 마신 담배의 독성에 만신창이가 된 상태가 바로 접신 여행을 떠난 준비가 끝난 상태라고 하고 있다.

이르티쉬 지역의 오스티야크 샤먼의 병자를 고치는 과정을 살펴보면, 샤먼은 병자의 집에서 먼저 향을 사고 버섯을 먹고 잠이 들게 되고, 얼마 뒤 문득 잠을 깬 샤먼은 온몸을 심하게 떨면서 영신들이 자신에게 드러낸 바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버섯중독에 의한 접신으로 볼 수 있고 향을 사른 것은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인다. 유사한 현상으로 마취제와 담배를 이용한 접신이 있다. 접신상태에서 샤먼은 탈혼망아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고, 지역에 따라 그 수단이 소리가 채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54) 미르치아 엘리아데, 이윤기 옮김, 『샤머니즘』, 까치, 2003(재판발행일), pp.78~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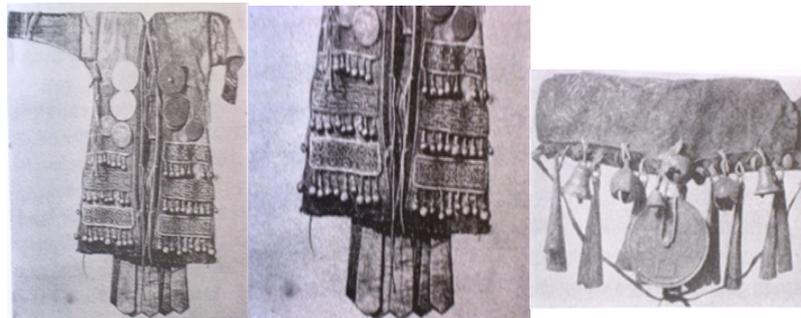
55) 미르치아 엘리아데, 이윤기 옮김, 『샤머니즘』, 까치, 2003(재판발행일), pp.105~108.

부르야트의 무복과 용구는 1)모피 2)살쾅이 모양의 모자 3)나무나 쇠로 된 마장이 있다. 이 마장은 한 쪽 끝에 말머리가 새겨져 있고, 그 주위에는 수많은 방울이 달려있어, 막대를

이용하여 접신상태에 이른다. 뿐만 아니라 샤만은 어디서건 주술적인 가사를 노래하며, 용구로 방울이 이용된다. 인도네시아의 멘타웨이족에서는 샤먼⁵⁶⁾이 천계여행이나 접신적 상승의 준비단계에서 깃털과 방울이 달린 巫服을 입고, 투비남바 족(Tupinamba)에서는 손잡이가 있는 표주박에 박씨나 돌을 넣은 ‘딸랑이’를 사용하는데 영신들에게 음식을 바칠 때면 반드시 이 딸랑이를 들고 바친다. 또, 야루로족 샤만은 샤만이 망아상태 중에 만나는 고도로 양식화된 신들을 부를 때마다 딸랑이 울린다고 한다. 이것은 샤먼이 접신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금속제 방울소리가 아닐지라도, 혼란스럽고 빠른 鈴의 소리가 도움이 된다는 것



<圖13> 北方의 巫鼓와 銅鈴 (左-북알타이 무고, 右-남시베리아 하카스족의 무고)



<圖14> 에벤키족 무복 <圖15> 세부(圖 14) <圖16> 에벤키족의 腰飾

흔들 때마다 소리가 나게 되어 있다. 이들 무구 외에도 주물로 무고, 마장, 모피, 방울 등을 넣는 상자가 있다. (미르치아 엘리아데, 이윤기 옮김, 『샤머니즘』, 까치, 2003(재판발행일), pp.151~153.)

56) 미르치아 엘리아데, 이윤기 옮김, 『샤머니즘』, 까치, 2003(재판발행일), p.172.



<圖17> 鄂倫春族의 跳舞하는 샤먼

을 제시하는 예이다. 북방 퉁구스족의 일종인 예니세이 오스티야크 샤먼이 실제 접신하는데 사용되는 도구로 巫鼓가 있다. 이것은 <圖13>에서처럼, 뒤쪽에는 수평으로 늘어진 줄과 나무로 된 췌기에 금속, 딸랑이, 방울 등과 쇠붙이가 매달리는데, 북과 함께 소리를 내는 샤먼의 도구이다. 이렇게, 종교적 직능자인 샤먼은 접신을 통해 신의 뜻이나 효력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데, 접신을 하는 과정에서 망아가 수반되고, 망아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러므로 다른 보조적 수단과 함께, 鈴이 사용되고 그 소리는 심리적 혼란감, 이성적 판단에 흥미함을 일으키면서, 샤먼은 그 음에 맞춰 노래하고 춤을 추면서 신을 부르고⁵⁷⁾, 접신하게 된다.⁵⁸⁾ 특히 19세기 초 에벤키족의 샤먼이 접신하는 과정을 보면, 소리의 효과가 드러난다. 에벤키족이 영적인 행사(spiritual performance)를 할 때에는 샤먼이 노래를 부르고, 군중들이 낮고 큰 소리로 노래를 따라 부르는데 점점 빨라진다. 그런 소리의 가속화는 샤먼의 접신을 돕게 된다.⁶⁰⁾ 그러므로 鈴具의 강렬

57) 미르치아 엘리아데, 이윤기 옮김, 『샤머니즘』, 까치, 2003(재판발행일), pp.167~168.

58) 미르치아 엘리아데, 이윤기 옮김, 『샤머니즘』, 까치, 2003(재판발행일), pp.98~99.

스승 샤먼이 입문의례를 거행할 때 노래를 부르며 영신을 부르는데, 스승과 입문자는 며칠을 앉아서 노래를 부르거나 방울을 울리거나 하는 모습을 보이고, 춤과 노래, 소리를 통해 강렬해 달라는 뜻을 신에게 피력하는 것으로 여긴다는 사례가 있다.

59) 미르치아 엘리아데, 이윤기 옮김, 『샤머니즘』, 까치, 2003(재판발행일), pp.108~110

브리티시 컬럼비아 내륙에 있는 살리쉬 족(Salish)의 支族인 슈스와푸인 샤먼은 동물이 샤먼 자신의 수호령신된다. 이 제의에서 전사나 샤먼은 원하는 사물로부터 초자연적인 도움을 받는다. 사춘기에 이른 청년은 여성을 경험하기 전에 산으로 들어가 많은 시련을 이겨내야 한다. 입문자는 산 속에서 땀집(sweat house)을 짓고 밤에는 여기에서 기거해야 한다. 아침이 되면 마을로 돌아와도 된다. 그러나 밤에는 이 땀집을 손수 청결하게 하고 밤새도록 여기에서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어야 한다. 입문자는 자신이 마음에 두었던 동물이 꿈 속에 나타나 수호영신이 되어 도와주겠다고 할 때까지 이런 생활을 계속해야 한다. 이런 생활은 몇 년이 걸리는 수도 있다. 이런 꿈을 꾸게 되는 순간 입문자는 기절한다. 입문자는 기절하는 순간부터 술에 취한 것과 비슷한 상태가 되어 밤인지 낮인지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이 때 동물들은 입문자에게 자기의 도움을 바라는지를 묻고, 바란다는 대답을 들으면 자기의 도움이 필요할 때 부를 노래를 가르쳐준다. 바로 이 때 문에 샤먼에게는 그 샤먼만이 아는 노래가 하나씩 있다. 다른 사람은 이 노래를 부를 수 없다. 즉 샤먼이 자기 수호영신을 요술사로 부를 때 이외에는 이 노래가 불려져서는 안된다고 한다.

하고 빠른 음악과 흥분된 노무는 무아·망아지경에서 신이 내리도록 해준다고 할 수 있다.⁶¹⁾ 이것은 샤먼이 접신하는 수단인 동시에, 주변에 군집한 사람들에게 게도 샤먼의 비정상적인 상태를 쉽게 납득시켜서, 그것을 믿고 따르게 하고, 또 그 소리를 통해 神을 만나고, 그것이 곧 神의 상태를 반영하기도 하므로,⁶²⁾ 샤먼의 의례를 참여자, 군중들의 동의와 융합을 이끌어내는 기능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현존하는 우리나라 민속 예에서 동령류가 이용되는지와 이용된



<圖18> 무속12걸이도, 부분,
서울대학교박물관소장

다면 어느 시점에 어떤 의도로 이용되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리나라에는 샤먼의 의례를 무속의례라고 한다. 여기서도 巫(Shaman)는 신과 접촉하여 인간의 뜻을 신에게 전하고, 다시 신의 뜻을 받고, 신의 힘을 빌려 여러 가지 능력을 발휘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무속에서도 神과의 접촉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고, 神과 접촉하는 순간이 클라이맥스라고 하겠다.⁶³⁾ 巫가 신과 접촉하기 위해서는 神을 청하여야 하는데, 이 때는 방울을 흔들거나, 장구를 치면서 巫歌를 부르는 방법을 취한다.⁶⁴⁾ 그리고 그 안에서도 느린 가락에서 점차 빠른 가락으로 변

해가면서 신들리게 하기도 한다.⁶⁵⁾

60) F. Georg Heyne, 『The Social Significance of the Shaman among the Chinese Reindeer-Evaenki』, 『Asian Folklore Studies』 vol.58 no.2, 1999.

61) 홍희, 『샤먼과 무구』, 『神話, 그 영원한 생명의 노래』, 예술의 전당, 2000, p.84.

62) 샤먼의 가슴에 달린 작은 종들(Small Bells)은 춤이나 접신의 리듬을 반영하고 정신을 크게 놀라게 해서 깨운다고 한다. Eric Chazot · Jean-Pierre Girolami, 『Art and Shamanism on the Himalayas』, 『The World of Tribal Arts』 vol.6-no.1, 1999.

63) 김태근, 『巫의 단골제 연구』, 『馬韓百濟文化』 1, 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研究所, 1975. 우리나라의 巫는 빙의하는 강림무에 해당된다. 강림무는 신의 영력이 인간, 즉 巫의 몸에 들어와서 그 영력에 의존해서 판단하고 행위한다고 한다.

64) 鄭炳浩 外, 『巫舞』,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 1987, pp.27~29.

65) 신들리게 하는 가락은 박자가 느린 것에서 점차 빨라짐으로써 巫의 흥분과 흥미함을 유발하고 군중 역시 참여하고, 그 의례에 대한 신빙성, 신의 강림에 대한 믿음을 불러일으키며, 그런 혼란과 흥분 속에서 신이 강림하게 된다.

우리나라 중부 및 영동지방에서 사용되는 무구⁶⁶⁾로 방울, 부채, 삼지창, 은월도 등이 있다. 그 중에서 방울은 낫쇠로 된 Y자형 끝에 鈴部가 7개 달리고 그 하단부에 끝에 1m 길이의 노란색 인조견 끈이 달린 것인데, 降神用⁶⁷⁾으로 사용한다.⁶⁸⁾ 현재까지 남아있는 우리나라巫의 예에서 살피더라도 鈴이 降神, 즉 接神을 위한 도구임을 알 수 있다.



<圖19> 조선방울
삼척박물관

그러므로 우리나라 삼한시대에 출토되는 동령류는 구상적이지 않은 상징적인 문양을 가지고 있다는 점,⁶⁹⁾ 그 상징적 문양이 시베리아 사면의 무구의 문양과 유사하다는 점⁷⁰⁾에서도 동령류가 접신을 위한 도구로 기능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 또 하나의 鈴에 여러 개의 鈴部가 달린다든지, 아니면 여러 개체가 세트로 출토된다든지 하는 점은 소리의 혼란스러움을 가중시키고, 공명을 통해 음량을 고조시키므로, 앞에 예로 든 여러 사례들의 정황을 충족시킨다.

함평 초포리유적과 화순 대곡리유적에서는 분묘에서 동령류가 출토되었다. 그러나 傳 논산, 傳 덕산, 傳 낙동강 등과 같이 출토지가 미상인 경우에 있어서는 매납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⁷¹⁾ 초포리유적을 통해 분묘 내에서 동령류는 다른 유물과 별개로 벽석과 묘광 사이 공간에 끼워졌고, 이 유물들은 관외 매장품이므로 특정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사용했던 기물이 아닌가 한다.⁷²⁾ 즉 피

66) 서울특별시 龍山區 桃園洞 거주하면서 1964년 3월 5일부터 1979년 3월 3일(조사시점)까지 巫業에 종사하는 文德順씨의 사례이다.

67) 1973. 6. 17.~18.과 1976. 8. 14.의 기간동안 조사된 鄭大福의 경우는 平安南道 平壤에서 곳을 배웠고, 조사당시 서울에서 무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무구로 사용하는 방울은 역시 降神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 (金泰坤, 『韓國巫俗研究』, 集文堂, 1991, p.47, pp.133~139.)

68) 金泰坤, 『韓國巫俗研究』, 集文堂, 1991, p.47.

69) 추상적·기하학적 문양의 원인에 대해 첫째, 기술적 과정에서 장식에 대한 무관심, 무감동적인 것이 발생한 것, 둘째, 상징적인 목적에 의해 결정된 의도적인 것임을 제시하였다. 인간은 어떤 문화에서도 기술의 실용성뿐만 아니라 미적만족을 추구하는 형태로 장식이 가해지는 성격을 가지고, 예술은 그 문화의 기술능력에 대응해서 표현된다고 지적하였다. 綾部 恒雄 외, 『文化人類學事典』, 株式會社ぎょうせい, 1981, pp.239~2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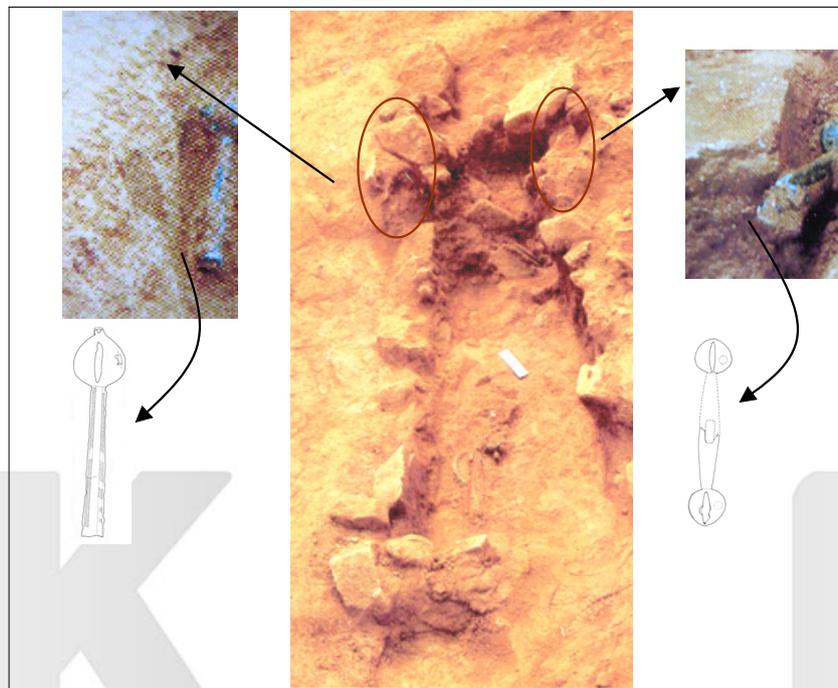
청동신음구의 문양은 그들 사이에 공통성이 인지되므로, 유사 모티브와 상징성을 가지는 것으로 생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70) 李健茂, 『韓國 靑銅儀器의 研究-소위 異形銅器를 中心으로』, 漢陽大學校 碩士學位論文, 1987.

71) 李清圭, 『嶺南지역의 靑銅器에 대한 論議와 解釋』, 『嶺南考古學』 30, 嶺南考古學會, 2002.

72) 관내 부장과 관외 부장은 의미에 차이가 난다. 관내 매장품은 실제 피장자가 일상적으로 착용

장자와 어느 정도 연계는 있으나, 그 관계가 추상화되어 약해지거나, 상대적으로 공동체적 색채가 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⁷³⁾



<圖20> 초포리유적에서 동령류의 출토위치

이제 구체적으로 이들 동령류의 사용방법을 살펴보면, 팔주령은 신부 중앙에 설치된 폭이 0.4cm정도 되는 鈕가 있어, 그곳에 천이나 실을 끼워서 사용했을 것으로 생각되는 동시에, 鈴部를 포함한 직경이 13cm, 鈴部를 제외하고 枝~枝의 거리가 약 8cm로, 손에 쥐기 적당한 사이즈라는⁷⁴⁾ 점으로 보아, 뉴에 천을

용하거나 소지한 것이 다수를 차지한다. 그러나 관외 부장은 피장자가 평소에 가까이 두고 사용한 것을 배치하기보다, 특정한 시점에 사용한 것이나, 경계로의 의미를 가진 것 또는 분묘 축조과정상 각 단계를 통과하면서 일련의 시작과 끝을 구분짓는 하나의 의식적인 측면에서 부장한 것 등이 있다.

宮里修, 『青銅器祭祀의原流』, 『季刊考古學』 86, 雄山閣, 2004.

土生田純之, 『黃泉國の成立』, 學生社, 1998.

寺澤薫, 『首長靈觀念の創出と前方後圓墳祭祀の本質-日本的王權の原像』, 『古代王權の誕生』 I, 角川書店, 2002.

73) 宮里修, 『青銅器祭祀의原流』, 『季刊考古學』 86, 雄山閣, 2004.

74) 寒川朋枝, 『祭祀行爲についての検討-輕石制岩隅を素材として-』, 『人類史研究』 13, 2002.

끼워 그것을 양 손에 감아서 쥐고 흔들었던 모습도 생각할 수 있다.

쌍두령은 손에 쥐기 알맞은 형태를 하고 있다. 그러나 봉상부가 중공의 형식으로 되어 鈴部에서 발생한 소리를 정연시켜 주고, 진동이 둔화되는 것을 감소시키게 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棒狀部 가운데 뚫린 장방형의 구멍의 존재로 나무막대를 끼워서 사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조합식쌍두령은 鉋나 孔, 柄이 보이지 않아, 장착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추론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것이 조합되었을 때, 교차점을 통해 環狀의 고리가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그 고리에 걸쳐졌거나 環狀의 고리부분을 손으로 잡았을 수도 있다. 간두령은 직경이 약 4cm의 공부로, 막대를 삽입했던 투겹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테두리부에는 孔이 있거나 공부 한쪽에 耳가 있어, 아마 실, 끈을 늘어뜨렸을 것으로 생각되어, 소리뿐만 아니라, 시각적인 효과도 감안했음을 알 수 있다. 병부동령도 한국식동검Ⅱ기 말이나 Ⅲ기의 유적에 동반되고 막대를 끼우거나, 막대에 끼워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한국식동검단계Ⅱ기에 해당되는 鈴具는 독자적으로 신음구로서의 역할을 맡았을 것으로 생각되나, 4종령구의 해체 과정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鈴具는 수량도 적고, 유형화된 특성도 없어, 독립적으로 특정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하기 보다는 부수적인 존재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짐형령은 鉋가 달려 끈과 실을 맬 수 있고, 鈴部 내 丸이 있어, 發音에 사용하였을 것이라는 점만 짐작할 뿐이다. 조합상으로는 다른 동령류가 없이 단독으로 출토되고 있으나, 독자적으로 독립된 용도로 기능하였다고 하기보다는 다른 器物에 부속되어서, 부수적 역할을 담당한 기구였을 것 같고, 한국식동검Ⅲ기에 속하는 시기에 평양이나 경주지방에서 보이며, 시공상 지금 함께 다루는 동령류와 차이를 보이므로 별개의 성격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종합해보면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삼한시대에 보이는 동령류는 撥神,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강신하는데 사용된 神音具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2. 동탁류

가. 평양 근처에서 출토된 대동탁의 의미

평양 근처에서 보이는 대동탁은 한국식동검Ⅲ기와 IV기에 해당하는 분묘에서 출토된다. 주로 차마구와 함께 나타나므로 그와 관련된 부속품의 하나로 기능하였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당시 평양을 중심으로 낙랑군이 설치되고, 漢의

河内まき子 外, 『計測のための人體寸法データ集』, 『生命工學工業技術研究所報告』 2(1), 1994.
사람 손의 폭은 남녀노소별로 차이는 나지만 평균적으로 7.5cm~9.5cm라고 한다.

문물이 유입·성행하는 시기적인 사회상을 보여준다. 이들 분묘에서는 차마구를 비롯한 철제이기류, 철제공구류 등이 출토되는데 이것들은 한나라의 영향을 받은 낙랑적 요소로 볼 수 있다. 특히 여기서 다루고 있는 동탁과 공반하는 차마구는 낙랑분묘 유구 중 上位, 中上位 rank에 부장되었으므로, 계층을 반영하는 하나의 지표라고 볼 수 있는데,⁷⁵⁾ 그것이 최상위층에서 뿐만 아니라, 그 아래 계층에서도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차마구가 단순하게 신분의 표상용으로 위엄을 드러내는 용도에만 한정되어 사용된 것이 아니라 실제 운송수단으로 이용되었음을 방증하고, 동탁 역시 말이나 수레에 장착되어 움직임에 따라 소리를 유발시킨 마탁으로 여겨진다.

나. 우리나라 남부지역에서 출토된 대동탁의 의미

평양 근처에서 출토되는 대동탁은 마탁이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우리나라 남부지역에는 평양지역에서 차마구가 공반되는 것처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공반유물이 없이 분묘에서 출토되므로, 마탁이라고 확신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현재 상정가능한 대동탁의 역할로는 마탁으로의 역할, 풍탁으로 기능, 대중에서 특정사실을 알리는 고지의 기능을 가진 퓌트, 제의·행사에 사용된 도구, 이렇게 네 가지의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마탁일 것이라는 가설에 대해서이다. 기본적으로 평양지역의 동탁과 한반도 남부에서 출토되는 동탁은 구성요소나 형태에서 동일하다. 그러므로 평양지역의 대동탁과 동일하게 마탁으로 기능하였다는 가설을 제기할 수 있다. 우리나라 最古의 동탁은 한국식동검 I기에 해당하는 대전 괴정동유적과 부여 합송리유적에서 출토된 예가 있는데, 낙랑설치 시기보다 선행하므로 그 단계에 말이 기승·운송용으로의 활용되었을 것이라는 점에 의문이 생긴다. 게다가 낙랑설치 이후에도 남부지역에서는 마구가 출토되는 사례가 없으므로, 말의 기승과 운송용으로 활용 여부를 긍정적으로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남부지역 대동탁을 평양지역과 같이 마탁으로 보는 것은 타당성이 떨어진다.

둘째, 풍탁으로의 가능성이다.⁷⁶⁾ 풍탁은 바람의 힘을 통해 쪼이 움직여서 탁신내부를 타격하고 다시 그 반동으로 반대편을 침으로써 음향을 발생시킨다. 그러므로 풍탁에는 설이 바람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단에 판상의 금구가 장착

75) 高久健二, 『樂浪古墳文化 研究』, 學研文化社, 1995.

76) 風鐸은 보통 삼국시대에 불교가 공식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시기 이후에 등장하므로, 삼한시대를 시간적 범위로 하는 본고에서 굳이 가설로 설정할 이유가 없을지도 모르나, 하지만, 탁이 이런 용도로 후대에 사용되므로 앞 시기에도 그런 성격을 가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여기에서 가설로 설정해보았다.

된다. 실제로 삼한시대 대동탁의 솜은 棒狀으로 매끈하고 하단에 금구를 장착시킬 만한 부분도 보이지 않아, 바람을 잘 받게 하기 위한 구조로 보기는 어렵다. 출토상황에서도 풍탁이라면, 堂塔 처마나 상륜, 또는 寶鎖에 늘어뜨려지는데⁷⁷⁾ 그 경우는 건물지, 주거지, 탑지 등과 같은 유구에서 출토될 것으로 생각되나, 실제 여기서 다루는 예들은 모두 분묘에서 부장되는 것이므로 풍탁으로 보기 어렵다.

셋째, 고지의 기능수행에 관해서는 日本 奈良縣 塘古·健遺蹟에서 출토된 토기회화에 표현된 三層建物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고층건물을 조망을 위한 통신거점 시설로 보고, 최상층에 북과 종을 배치하여 경보를 울리거나 연락을 취하는데 이용하였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 있다. 더구나 彌生時代에는 鐘이 없어, 鐸이 그 역할을 맡은 것으로 보고, 긴급사태에서의 조기대응 등에 사용하였을 것이라는 추정이 있다.⁷⁸⁾ 이처럼 鐸은 鈴에 비해 소리가 멀리까지 퍼질 수 있다는 점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태를 알리거나 연락하는데 쓰였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기민한 사태 파악이 가능한 장소인 높은 지대나 망루와 같은 시설에서 주위를 조망할 수 있는 입지에 탁이 설치되어야 할 것이고, 그렇게 가정한다면, 대동탁은 취락 내 공공장소에서 출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동탁이 개인의 분묘에 부장되는 양상을 보이고, 정보전달과 고지가 피장자 신분이나 직능과 같은 피장자의 성격을 반영할 만한 것이 아니므로, 대동탁을 단순히 정보전달 및 연락수단과 고지의 기능을 수행했다는 가설에 부합되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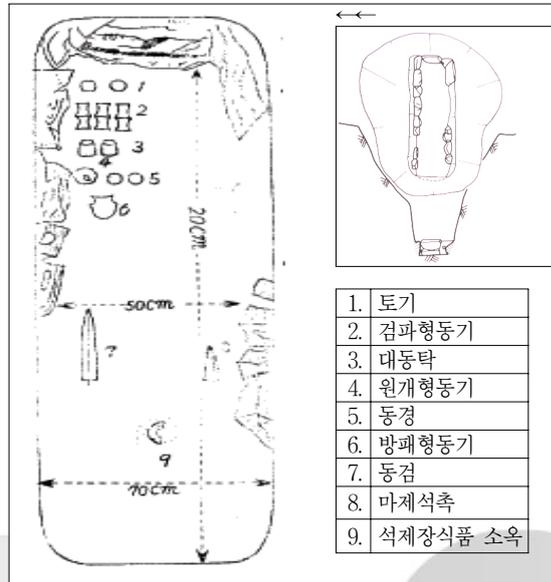
넷째로, 제의나 행사와 관련한 쓰임에 관해서 살펴보겠다. 먼저, 공반유물과 관련하여 보면, 한국식동검 I 기에 속하는 대동탁이 출토된 유적은 대전 괴정동유적과 부여 합송리유적이다. 대전 괴정동유적에서는 검과형동기, 원개형동기, 방패형동기, 마제석촉, 곡옥을 비롯하여 동검과 동탁이, 부여 합송리 유적에서는 원개형동기편, 정문경편, 이형동기 1점, 동부 2점, 유리관옥 7점, 흑색토기 저부편, 철착들이 동반되었다. 공반유물 가운데 검과형동기, 원개형동기⁷⁹⁾는 기존에 나타나는 용도를 명확하게 추정할 수 있는 동기와 이질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이형동기 또는 의기로 불리며, 출토위치를 보아도

77) 水野清一 外, 『考古學辭典』, 東京創元社, 1959.

78) 水野正好, 『古代音色の調べ』, 『古代史の論点5-神と祭り』, 小學館, 1999.

79) 동탁이 공반하여 본고에서 언급한 유적 외에 원개형동기가 출토되는 예산 동서리 석관묘 유적을 보면, 검과형동기 3점과 나팔형동기의 이형동기가 출토되고 있다. 그러므로 대전 괴정동 유적과 합송리유적은 유사한 성격임을 추정할 수 있다.

같은 곳에 자리잡는다. 이런 대부분의 이형동기는 현 상태에서 구체적인 사용방



법에 관해서는 아직 확 언할 수 없으나, 단위문 양⁸⁰⁾에서 시베리아 샤먼 무구와 비슷하여, 샤먼 과 관계된 의례에 사용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 다.⁸¹⁾ 앞의 여러 가설에 서 공공의 실용구로 이 용된 것이 아닐 수 있다 는 점을 뒷받침해주는 또 하나의 근거는 남부 지방에서 출토되는 대동 탁의 대부분은 분묘유적 에서 출토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이다.⁸²⁾

<圖21> 大田 槐亭洞遺蹟 遺構 推定圖로 본 大銅鐸 의 출토추정위치(李殷昌, 『大田 槐亭洞 靑銅器 文化의 研究』, 『亞細亞研究』 11-2, 1968.참조)

한국식동검Ⅲ기 와 IV기에 나타나는 동 탁은 동모, 동과를 동반

한다. 동모와 동과는 기마전이 불가능한 우리나라 지형에서 실전무기라는 점에 의심이 간다. 게다가 이미 철기시대가 도래한 이후 출현하는 동탁과 공반하는 이들 유물은 장대화되어 가는 과정의 것이거나 아니면 이미 어느 정도 장대화 된 것들로, 실제 휘두르기에 편리하지 않으므로 살상이라고 하는 실용적 측면이 약하다고 보아야 한다. 더욱이 또 공부 끝에 있는 장식적인 돌기나 문양, 혈구에

80) 손이나, 사슴과 같은 문양이 시문되어 있으며, 외연에는 기하학적 문양이 배치되어 있다.
 81) 李健茂, 『韓國 靑銅儀器의 研究-소위 異形銅器를 中心으로』, 漢陽大學校 碩士學位論文, 1987.
 82) 미국 Western Kentucky의 Grenn River area의 Indian Knoll Culture에서 보이는 수 천 개의 인공물을 기능에 따라 3가지로 분류한 Winter's analysis에 따르면, 유물은 출토유구의 성격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인공물은 기능에 따라 General utility implements, Ceremonial equipments, Ornaments로 나뉘는데, General utility implements는 98~99%가 폐기유구(middens)에서 발견되지만, Ceremonial equipments는 75%나 그 이상이 burial association에서 발견되는 것으로 정리된 바 있다. (James, N. Hill, 『Prehistoric cognition and the science of archaeology』, 『The ancient mi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pp.84~85)



<圖22> 佐賀縣 川寄吉原의 鐸形土製品

정되는 鐘狀의 것⁸⁴⁾이 등장하는 점은 비록 탁의 사용방법 등이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의례의 구성요소 가운데 한 부분을 차지하였음을 상징적으로 드러내어 준다고 볼 수 있다.

대동탁의 사용방법과 관련해서 보면, 鈕에 마모흔이 관찰되어 실제 현수하였던 것임을 알 수 있다. 현수 방법은 日本 鳥取縣 稻吉角田遺蹟에서 출토된 토기의 선각회화로 추정할 수 있다. 나무에는 장타원형의 것이 현수되고, 오른쪽에 고상식건물, 또 오른쪽에는 나무와 고상식건물을 향하여 배를 짓는 鳥裝한 인물들의 모습이 표현되어 있다. 나무에 매달린 장타원형의 것은 가장 밑에 있

장식된 문양 등은 최초의 제작용도 및 목적과는 거리가 있고, 이런 형식의 것은 日本 九州地域에서는 보다 과장되고 거대화하여 模擬戰⁸³⁾에 사용하는 武器形靑銅祭器로 발전된 현상을 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동모와 동과가 의식용구로 사용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고, 동탁도 이와 밀접한 용도를 가졌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덧붙여서 일본에서 모의전을 주재하는 사면을 표현한 것으로 보여지는 挿圖 22에 제시된 佐賀縣 川寄吉原의 鐸形土製品의 선각 회화를 보면, 주체자가 양손에 각각 戈와 劍을 들고 있고, 그 옆에 鐸으로 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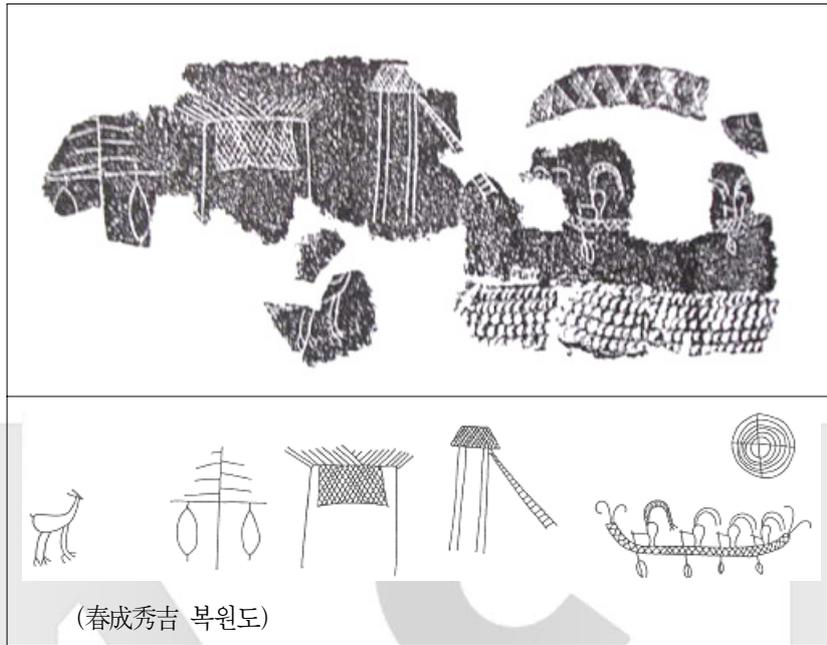
83) 寺澤 薫, 『王權誕生』, 講談社, 2000.

酒井龍一에 따르면, 祭祀形態의 特質로 調和型, 祈願型, 武威型, 威嚇型, 總動員型으로 나눌 수 있다. 模擬戰과 관련된 형은 祈願型, 武威型인데, 祈願型은 대상에 강하게 기원하는 제사로 무기용제기 등이 매개가 되어 제사대상에게 강력하게 실현을 촉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행위는 단지 관념적인 것일 뿐으로 실제 어떠한 강제력 작용하지 못한다. 또 다른 의미로는 외적과 악령 등의 진압 방지하는 제사로 가정할 때, 다시 무기형제기 사용된다. 武威型은 기원형이 보다 강화된 것인데, 武威性을 적극적으로 나타내어 대상을 위협하는 제사지만 역시 실질적인 강제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무기사용의 模擬적 행위로 정리된다. (酒井龍一, 『古代祭祀の諸形態』, 『都市と神殿の誕生』, 新人物往來社, 1998.)

우리나라 민속에서 보았을 때, Agon형으로 경쟁, 경합을 하는 예들도 일종의 모의전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생산과 관련하여 점복적인 의미에서 이미 승패를 결정해두고 경쟁을 하지만, 경쟁이 수반된다고 하는 점은 전투의 관념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84) 佐原 眞·金關 恕, 『銅鐸から描く彌生時代』, 學生社, 2002, pp.52~54.

는 가지에 한 개씩 따로 따로 매달려 있는데, 그것은 紐를 이용해 나무에 매달려 있는 동탁으로 여겨진다. 이 모습은 동탁을 나무에 현수하는 초기 도작농경 문화단계의 제사로 해석된 바 있다.⁸⁵⁾



(春成秀吉 복원도)

<圖23> 日本 鳥取縣 稻吉角田遺蹟 출토 線刻土器 繪畫

이렇게 양 나뭇가지에 각각의 동탁을 매달았을 경우에는 소리를 내기 위해서 鉦에 끈을 묶어 그것을 수하시켜 사람이 잡아당겼을 것으로 보이는데, 따로 떨어진 나뭇가지에 걸려있으므로 대동탁을 다루었을 사람은 主祭者 한 명이라고 보기 어렵고, 보조자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런 제의상

85) 金關 恕, 『彌生時代の祭祀と稻作』, 『考古學ジャーナル』 228, 1984.

金關 恕의 연구를 시작으로 일본에서는 동탁을 三國志 魏書 韓傳에 나타난 기사와 출토위치, 출토상태, 수량, 형태 등을 통하여 의기로 확신하고 있다. 특히 “聞<銅鐸”에서 “見る銅鐸”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대형의 동탁이 고도로 상징화된 문양을 비롯하여 탁신에 그려진 구상적인 문양을 통해, 농경의례용구로 파악한다. 또한 여러 점이 한꺼번에 밀집하고, 그 위치도 개인에 소속된 분묘나 주거지가 아닌 주변에 별다른 시설이 없는 곳에 매납되어 있어 공동체의 제사로 추정한다. 매납과 관련해 여러 해석이 있으나, 크게 地中保管說(三品彰英), 廢棄說(寺擇 薰), 地鎮具說(佐原眞)로 집약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동탁이라는 점과 의례에 사용했을 것이라는 점을 제외한 대부분의 정황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황에 대동탁이 이용되었을 것 같다.

鐸을 나무에 매다는 것은 곧 神木에 현수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⁸⁶⁾ 그 모습은 중국문헌에 나타난 韓地의 제의 모습을 묘사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三國志 魏書 東夷傳 韓條

信鬼神, 國邑各立一人主祭天神, 各之天君. 又諸國各有別邑, 各之謂蘇塗. 立大木, 縣鈴鼓, 事鬼神. 諸亡逃至其中, 皆不還之, 好作賊.

後漢書 東夷列傳 馬韓條

諸國邑各以一人主祭天神, 號爲「天君」. 又立蘇塗, 建大木以縣鈴鼓, 事鬼神.

晉書 東夷列傳 馬韓

國邑各立一人主祭天神, 謂爲天君. 又置別邑 名曰蘇塗, 立大木, 懸鈴鼓, 其蘇塗之義, 有似西域浮屠也, 而所行善惡有異.

이들 문헌에서는 國 안에 別邑이 존재하고, 그 이름을 蘇塗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큰 나무를 세우고, 나무에 鈴과 鼓를 매달아 귀신을 섬긴다는 것을 주내용으로 삼고 있다. 여기에서 鈴으로 표현된 것은 우리가 鐸이라고 부르는 것에 상응한다고⁸⁷⁾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韓地에서는 특정장소에 나무가 세워지고, 그 나무에는 탁이 현수되면서 제의가 행해지는 모습으로 복원될 수 있다. 이 해석은 鳥取縣 稻吉角田遺蹟 출토의 토기선각회화와 동일 모티브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들로 미루어보아, 우리나라 남부지역에서 나타나는 대동탁은 神音具로 기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나무에 현수된 상태에서 사람이 끈을 잡아

86) 日本의 沖ノ島, 長野縣 建鉦山, 茨城縣 立野 등의 유적과 우리나라 竹幕洞祭祀遺蹟에서 출토된 유공원판이나 무기형, 석부형 등의 석제모포품, 奈良縣 新山古墳 출토의 臺座形石製品 등은 모두 현수하여 제사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다. 이 석제품들은 모두 구멍이 뚫려 있어서 실이나 끈과 같은 것을 관통시켜 나무에 매단다고 하는 공통성을 가진다. 일본에서는 彌生時代에서 奈良時代에 걸쳐서 樹木과 柱에 무엇인가를 현수하여 행하는 祭事가 連綿으로 계승되었던 것으로 생각하는데(土生田純之, 『黃泉國の成立』, 學生社, 1998, pp.228~232), 그것을 비단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유사한 관념이 있었을 것으로 여겨지고, 銅鐸이 바로 우리나라 三韓時代에 神木에 懸垂되어 제사지내는데 사용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87) 중국에서는 有舌有鈕의 것을 鈴이라고 부른다는 점을 감안할 때, 중국문헌에 나타난 ‘鈴’이라는 표현은 여기서 다루는 鐸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당겨서 소리를 내는 것으로, 소리에서 혼란스러움은 비교적 적은 편이다. 그러므로 주위를 집중시키고, 어떤 사실을 알리거나 군중 모으거나, 의례 분위기를 조성⁸⁸⁾·쇄신하는 일환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의례의 시작이나 끝을 참여자와 신에게 알리거나, 소리가 공기를 타고 하늘로 이동하듯이 의례적 상황에서 참여자들의 의사를 하늘로 전달한다는 의미를 가졌을 수도 있다. 이 경우는 군중의 참여가 수반될 것으로 여겨지고,⁸⁹⁾ 의례 중에 接神은 없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덧붙여 이 제의는 天神에게 天君이 집전하는 祭天儀禮⁹⁰⁾로 추정되는데,⁹¹⁾ 계절의 순환과 관련한 인간의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한반도

88) 불교에서 사용되는 범음구의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종교성을 띠는 일련의 정형성을 가진 神事에서의 동탁의 역할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鈺鼓는 淨土教에는 迎講을 시작해 唵불용, 권진용으로 사용하므로 기도자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기도자의 뜻이 하늘로 전달되도록 하고, 사람들에게 어떤 행위를 이끌어내는데 사용한다. 雲版은 용도는 衆僧의 수면을 깨우기 위하여, 좌선을 그만 둘 경우, 齋食 때를 알리는 등, 일상에서나 의례에서 각 단계와 시점을 알리기 위한 기능을 가진다. 손에 가지는 磬은 대중을 이끌기 위한 것으로 동참을 유도하는 기구이다. (香取忠彦, 『梵音具』, 『新版 佛教考古學講座』 5, 雄散閣, 1976)

일반적으로 범음구는 宗教的 雰圍氣를 높이기 위해 發音시키고 신에게 의사를 전달하고, 군중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데 사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89) 제사를 주재하는 천군은 國에 설치된 소도에 기거하면서, 제전을 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 제천행사는 곧 국중대회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 군중이 모여, 제의에 참가하고 그 후에 음주가무를 하면서 했다는 일련의 연결고리가 형성된다.

| 記事 | 史料 |
|--|----------------------|
| 以臘月祭天, 大會連日, 飲食歌舞, 名曰「迎鼓」, 是時羈刑獄, 走囚徒 | 『後漢書』東夷列傳 夫餘條 |
| 以十月祭天大會, 名曰「東盟」 | 『後漢書』東夷列傳 高句麗條 |
| 常用十月祭天, 晝夜飲酒歌舞, 名之爲「無天」 | 『後漢書』東夷列傳 濊條 |
| 常以五月田竟祭鬼神, 晝夜酒會, 羣聚歌舞, 舞輒數十人相踴踏地爲節, 十月農功畢, 亦復如之 | 『後漢書』東夷列傳 韓條 |
| 以殷正月祭天, 國中大會, 連日飲食歌舞, 名曰迎鼓. 於是時羈刑獄, 解囚徒 | 『三國志』卷30 魏書 東夷傳 夫餘條 |
| 以十月祭天, 國中大會, 名東盟. 其公會, 衣服皆錦繡金銀以自飾. 大加主簿頭著幘, 如幘而無餘, 其小加著折風, 形如弁. | 『三國志』卷30 魏書 東夷傳 高句麗條 |
| 常用十月節祭天, 晝夜飲酒歌舞, 名之爲舞天 | 『三國志』卷30 魏書 東夷傳 濊條 |
| 常以五月下種訖, 祭鬼神, 羣聚歌舞, 飲酒晝夜無休, 其舞數十人俱起相踴, 踏地低昂, 手足相應, 節奏有鐸舞. 十月農功畢, 亦復如知. | 『三國志』魏書 東夷傳 韓條 |

공동체 제의는 집행과정에서 참여를 통한 구성원들 간의 화합, 공동체적 질서감, 동질성과 유대감형성과 재확인, 확인, 정보 교의 장, 친밀감을 획득할 수 있다. 정치적으로는 주최자와 주재자를 정점으로 그들이 최고신으로부터 선택된 자로 지상의 권력을 위임받았다고 하는 지배체계의 정당성 등으로 요약되는 부차적 효과를 가진다.

90) 註 108의 『三國志』魏書 東夷傳 韓條를 비롯하여 여러 史書 기사 참고.

91) 金泰坤, 『蘇塗의 宗教民俗學的 照明- 호남지역 巫의 「단골制」와 「堂山」 信仰과 관련하여 -』, 『馬韓百濟文化』 12,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1990.

남부의 농경에서 중요한 단계를 마친 후 거행한 농경과 관련한 생업·생산의례⁹²⁾이었을 가능성도 있다.⁹³⁾

다. 소동탁의 역할과 의미

소동탁은 한국식동검3기에 등장하고, 우리나라에는 祖形이 될 만한 것이 없다. 반면 중국에서는 前漢代 분묘에서 소동탁이 출토되고, 크기와 형태, 문양에서 우리나라에서 출토·발견되는 소동탁과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BC108, 낙랑이 설치되는 시기가 우리나라에서 소동탁이 등장하는 한국식동검 III기와 일치하므로 소동탁은 중국 漢의 조영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⁹⁴⁾ 분포는 동탁과 같이 평양부근과 경주를 비롯한 남부지역에 나타난다. 출토양상이 명확한 것은 드물지만, 평양지역에서 공반유물을 확인할 수 있는 오아리 23호, 석암리 9호 등에서 볼 때, 車馬具를 동반하는데, 소동탁은 盛裝을 한 말에 달려 소리를 냄으로써 주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우월성을 과시하며, 위엄이나 소속, 지위의 상징으로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⁹⁵⁾

그러나 남부지역에서는 경주 입실리유적, 경주 조양동유적, 대구 신천동유적, 창원 다호리유적 등지에서 출토된 바 있으나, 당시 말을 이용하는 목적이 한반도 북부지역과 달랐을 것으로 보인다. 『三國志』에 나타난 문헌기록에는 우리나라 북부지역의 교통수단에 대한 언급이 없고, 삼한에서 말의 쓰임이 달랐다고 언급하고 있는 점은 북부지역은 중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승마가 보편화되어 있었음을 방증하고,⁹⁶⁾ 삼한이 성립되어 있던 우리나라 남부지역에서는 말이 기승·운송용으로 이용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우리나라 남부지역의 이들 유적에서는 車馬具가 출토되지 않고, 동검, 동모, 동과 등 한국식동검 III기와 IV기에 나타나는 유물들이 공반되므로 경상도지역의 소동탁은 마탁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서 유입된 물품이므로, 지역 독자의 용도로만 추

92) 파종이 끝난 5월과 농사가 끝난 10월에 행해진다고 하므로 농경관련 의례로 추정된다.

93) 부여는 殷 正月에 제천의례가 이루어지므로, 농경의례라고 하기 보다는 수렵적 성격을 갖는다. (崔光植, 『韓國 古代國家의 支配이데올로기』, 『한국사의 시대구분』, 신서원, 1997. p.138)

그러므로 제천의례를 농경의례에 국한시키기보다 전반적인 생업과 관계된 기원과 감사의 성격을 가진다고 생각할 수 있다.

94) 國立中央博物館, 『樂浪』, 삼화인쇄주식회사, 2001.

한병삼, 『월성 죽동리출토 청동기 일괄유물』, 『三佛金元龍教授停年退任紀念論叢』 1, 一志社, 1987.

95) 森造 一, 『考古學と馬』, 『馬』, 社會思想社, 1988, pp.51~52.

96) 김정숙, 『문헌 속에 나타난 한국 고대인의 삶과 말(馬)』, 『고대의 말』, 영남대학교박물관, 2002, p.124.

정하기는 어려운데, 실제 문물이 전래될 때, 수용지에서는 원래의 용도를 의식하고 있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지역에 따라 그 곳 자체의 성향과 관련하여 변용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남부지역에서 자생한 것이 아니라 유입된 소동탁은 원류지라고 할 수 있는 漢과 낙랑에서의 용도와 완전하게 별개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지역에 따라 적절하게 변화하여 쓰였을 것이다. 남부지역에서 말이라고 하는 동물은 평양지역과 같이 기승용, 운송용⁹⁷⁾으로 실용적 목적에서 사용되었다고 하기보다는 말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은 있지만, 말을 평양지역과 다르게 이용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三國志』 卷30 魏書 東夷傳 韓條

… 不知乘牛馬, 牛馬盡於送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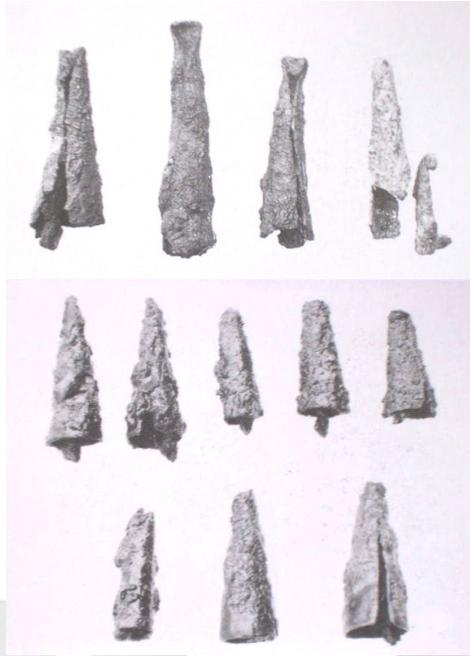
『晉書』 東夷列傳 馬韓

… 不知乘牛馬, 畜者但以送葬.

이 기사는 말과 소를 장송의례에 이용하였음을 보여주고, 인간이 특정 동물을 쉽게 특정용도로 이용한다는 것과 말과 소는 이미 가축화되어 있었음을 시사한다. 가축화한 소와 말을 기르기 위해서는 풀의 공급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아마 당시 사람들은 우마를 끌고 산이나 들로 가서 풀을 뜯어 먹였을 것인데, 우마를 야외에 풀어놓다 보면, 우마가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도 있고, 사람 역시 일을 하다보면 좀 떨어진 곳까지 이동해 갈 수 있고 날이 어두워지거나 주위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 때 소리를 내는 것을 달아둔다면, 위치를 파악하는데 상당히 유리하다. 그러므로 소동탁은 마탁이나 우탁으로의 실용되었을 수 있고, 그것은 어둠이나 위험 속에서 안전한 곳으로 갈 수 있는 매개의 역할을 하므로, 다시 상징화 과정을 거쳐 死者의 영혼 역시 안전하게 타계로 갈 수 있게 인도하는 매개적인 역할도 담당하였을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남부지역에서 출토된 소동탁은 우마에 장착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특히 남

97) 말이 인간을 위해 사용될 때의 역할에 대한 森造 一의 정리가 있다. ①식용으로 고기를 이용, ②끄는 힘을 통해 쟁기갈기와 같이 농경에 사용 ③승마로 훈련하여 전투에 이용 ④통신 및 연결의 내륙교통수단 ⑤물자의 운송수단 ⑥가죽을 무기나 용기의 재료로 사용 ⑦신앙으로서의 용도로 집약된다. 이 중 ①~⑥까지는 농경용, 전쟁용으로서의 중요성에서 파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특히 ②의 농경에 이용한다는 것은 일본에서 古墳時代보다 떨어질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森造 一, 『考古學と馬』, 『馬』, 社會思想社, 1988, pp.45~46.



<圖24> 우리나라 출토 鐵鑿(上: 陝川 苧浦 5-1號墳 出土 鐵鑿 下: 陝川 倉里 B地區 出土 鐵鑿)

부지역에서는 장송의례에 이용되었다고 하는 우마와 관련하여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부장하였을 수도 있다. 이것이 이후 삼국시대가 되어서 말이 기승에 이용되더라도 소동탁이 여전히 마탁으로 채용되어 나갔을 것으로 생각되고, 삼한시대와 삼국시대에 해당하는 소동탁은 재질, 형태, 문양면에서 서로 유사성이 높아, 연결선상에 있으므로, 삼한시대에 나타나는 소동탁도 삼국시대⁹⁸⁾와 완전히 동떨어진 용도는 아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남부지역 소동탁의 용도에

대해서 또 다른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그것은 소동탁을 장대 끝에 매달아서 사용한 것이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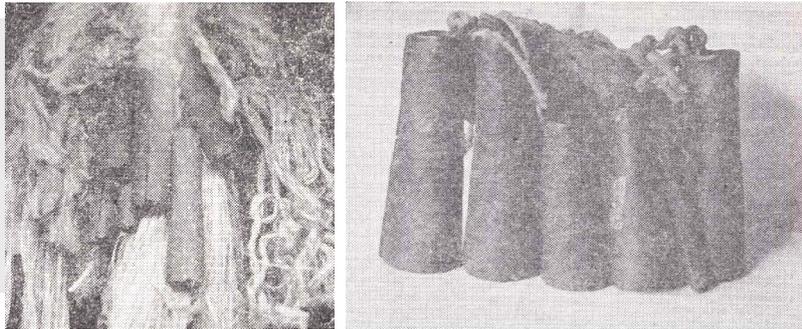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삼국시대 합천, 창녕, 칠곡, 안동, 부산, 경주 등지의 고분에서 철탁이 출토되는데, 크기는 삼한시대 소동탁 범주에 들어가거나 약간 큰 정도이고, 출토상황에서는 여러 점이 일괄 출토되는 공통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휴대용으로 생각되는데, 한꺼번에 연결되어 흔들거나 들고 다닐 때

98) 신라의 帳籍은 3년에 한 번씩 백성의 호구를 조사한 것인데, 그 등재순서를 보았을 때, 烟戶, 人, 馬, 우, 닭, 전, 삼전, 상, 백자목, 추자목의 순서로 나와있어 삼국시대에는 말이 중요한 재산의 하나로 인식했고, 말을 많이 소유할수록 영향력 있는 사람임을 반영한다. 또 예의 責禍와 관련된 기사를 보더라도 말이 재산상 큰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김정숙, 『문헌 속에 나타난 한국 고대인의 삶과 말(馬)』, 『고대의 말』, 영남대학교박물관, 2002, pp.129~130.)

삼한시대를 뒤이은 삼국시대의 소동탁은 높은 신분자의 분묘에 다른 기승구와 장식구와 함께 부장되므로, 고위 신분자가 盛裝한 말에 탈 때, 함께 착용되어, 시각적 효과뿐만 아니라, 청각적 효과를 발휘하여 위엄을 나타내는데 이용(李蘭暎·金斗喆, 『韓國의 馬具』, 한국마사회 마사박물관, 1999, p.47.)

말의 장식구로 가슴걸이에 매달아 소리를 내게 하여 말의 걸음을 재촉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을 것으로도 보인다.(朴泳姬, 『韓國 銅鈴과 銅鑿에 대한 연구』, 淑明女子大學校 碩士學位論文, 1987, p.9)

소리가 울리도록 된 것이다.⁹⁹⁾ 이것은 여러 점의 탁을 하나의 막대 끝에 매고, 천이나 실과 같은 것을 달고, 그 막대를 사람이 손으로 잡고 흔드는 諏訪神社에 전하는 鐵鐸의 모습으로 복원될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¹⁰⁰⁾ 또 小野神社라고 하는 일본의 神社에는 2점의 神代鉾 끝에 철탁이 각각 5점과 6점이 몇 묶음의 실과 함께 매달려있는 예도 있다.¹⁰¹⁾ 이런 철탁은 하나의 막대에 5~7개의 개체가 하나의 막대에 매달려 있으므로, 발음원리는 혀와 器壁의 충돌에 있기도 하지만, 함께 매달린 탁신 자체들끼리 서로 부딪히는 것 역시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점들은 우리나라 남부지역의 소동탁과도 상통한다. 경주 입실리유적에서는 5점의 소동탁이 출토되었고, 탁신외벽의 마모흔이 있으므로 철탁과 마찬가지로 막대에 매달려서 소동탁들끼리 충돌하여 소리를 내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 경우 사람이 장대를 잡고 쉽게 휴대와 이동을 할 수 있고, 소리를 내기 위해 흔드는 것도 용이하였을 것이다.



<圖25> 現傳하는 日本 神社의 鐵鐸 (左: 小野神社 神代鉾에 달린 鐵鐸, 右: 諏訪神社의 鐵鐸)

VI. 맺음말

이상에서 우리나라 삼한시대 靑銅神音具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동령과 동탁의 종류와 시공적 특성을 살펴보고, 그에 따라 신음구와 그 외의 용도로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을 구분하고 그에 따른 해석을 시도해보았다.

99) 國立晉州博物館, 『눈으로 보는 고대의 소리』, 1992.

100) 藤森榮一, 『銅鐸』, 學生社, 1977, p. 115, pp.183~184.

101) 藤森榮一, 『銅鐸』, 學生社, 1977, pp.186~201.

본장에서는 본문에서 다루었던 것을 정리하고, 현 시점에서 한계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삼한시대의 靑銅音具는 銅鈴類와 銅鐸類가 있고, 모두 악기분류법상 間接體鳴樂器에 속한다. 이 가운데 동령류는 다시 장착·착용방법과 형태에 따라 竿頭鈴, 八珠鈴, 雙頭鈴, 組合式雙頭鈴, 蠶形鈴, 柄部銅鈴, 錨形鈴 등으로 분류된다. 한국식동검Ⅱ기인 BC200에 출현하여 간두령, 팔주령, 쌍두령, 조합식쌍두령의 4종령구가 세트로나타나다가, 점차 그 조합에서 하나, 둘 이탈하면서 간두령만 한국식동검Ⅲ기, AD1까지 그 외 동령류와 동탁류와 함께 잔존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 시기적 흐름은 간두령 형태의 단순화, 조질화의 방향과 일치하고 있다. 지역적으로는 한국식동검Ⅱ기 초에는 충청도와 전남일대에서 보이다가 점차 경상도지역으로 이동되는 경향이 관찰되지만, 지역성을 논하기에는 출토지와 상태가 불분명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자료가 부족하다는 것이 한계점으로 남아있다.

동탁류는 크기에 따라 대동탁과 소동탁으로 분류되고, 대동탁은 한국식동검Ⅰ기인 BC300에 출현하여, 한국식동검Ⅳ기인 AD100까지 지속적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 상태로 분포는 평양지역과 우리나라 남부지역인 충청도, 경상도지역에 밀집한다. 형지공의 위치는 시기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 형지공이 상부에서 하부로 내려가는 경향을 보인다. 탁신 축선의 각도는 지역성을 반영하는 속성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평양지역은 각이 완만한 편이고 남부지역은 경사진 편인데, 이 차이는 漢의 영향을 받은 낙랑 소동탁 중 완만한 경사도를 지닌 것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한다. 한반도 남부의 동탁은 한국식동검Ⅰ기부터 보이는 재지 동탁을 계승하는 것으로, 재지적 성격을 가지는 神音具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평양지역에 나타나는 동탁은 소동탁의 漢문화적 요소와 한반도 남부의 재지적 요소가 복합되어 나타난 중간정도 되는 경사각을 가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동령류와 동탁류의 기능을 살펴보면, 4종령구인 간두령, 팔주령, 쌍두령, 조합식쌍두령과 우리나라 남부지역에서 출토된 동탁은 신음구로의 소명을 하였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고, 평양지역의 대동탁과 소동탁은 마탁이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남부지역의 소동탁 역시 우마에 착장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그 의미는 평양지역과 동일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 문헌을 통해 보았을 때 남부지역의 우마가 장송의례와 관계되므로, 남부지역 소동탁은 장송관련용도로 추론할 수 있다. 용도에 관한 또 하나의 가능성은 여러 점이 공반된다는 점과 탁신외면 마모흔 등으로 미루어보아, 철탁과 같이 하나의 장대에

현수되어 神音具로 사용되었다고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신음구로 역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보이는 동령류와 남부지역 대동탁은 각기 다른 상황에서 사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동령류는 소리의 특징과 우리나라 민속사례, 다른 나라의 민족지 등을 통하여 샤먼이 접신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용이하게 하는 도구로 추정되고, 남부지역 출토 대동탁은 어느 정도 정형화된 공동체 제의에서 神木에 현수하고 참여자나 보조자가 탁을 흔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목적은 주위를 집중, 의례의 각 과정과 같은 특정 사실의 고지, 의례 분위기를 조성¹⁰²⁾·쇄신, 인간의 뜻을 신에게 전달하는 등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지금까지 삼한시대 청동음구를 분석하고, 신음구로 사용되었다고 여겨지는 것을 찾고, 그 사용방법과 의미를 추정해보았다. 연구과정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대상유물의 출토지와 출토상황이 명확한 것이 드물었다는 점과 수량적으로 풍부하지 못한 점, 수습 및 조사사례가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행해져서 전체적인 분포양상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 등이었다. 앞으로 여러 정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의 증가를 기대하면서, 이 글을 마친다.

102) 불교에서 사용되는 범음구의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종교성을 띠는 일련의 정형성을 가진 神事에서의 동탁의 역할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鈺鼓는 淨土教에는 迎講을 시작해 염불용, 권진용으로 사용하므로 기도자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기도자의 뜻이 하늘로 전달되도록 하고, 사람들에게 어떤 행위를 이끌어내는데 사용한다. 雲版은 용도는 衆僧의 수면을 깨우기 위하여, 좌선을 그만 둘 경우, 齋食 때를 알리는 등, 일상에서나 의례에서 각 단계와 시점을 알리기 위한 기능을 가진다. 손에 가지는 磬은 대중을 이끌기 위한 것으로 동참을 유도하는 기구이다. (香取忠彦, 『梵音具』, 『新版 佛教考古學講座』 5, 雄散閣, 1976) 일반적으로 범음구는 宗教的 雰圍氣를 높이기 위해 發音시키고 신에게 의사를 전달하고, 군중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데 사용했을 것으로 보인다.